2010.11.03 No.83
gonggam.korea.kr

Weekly 공감



농협, 개혁 통해 農心 속으로! p19~31

'환율 전쟁' 소방수 된 경주 G20 회의 p32~39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5년간 75조8천억원 투입 p10~11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p8~9



마음을 나눠요.

마음을 나누는 일은 사랑을 더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더하면 사랑이 넘쳐나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10 대학생 광고 공모전 최우수상작(인쇄광고).

G20 정상회의 개최는 해외동포들에게도 자긍심

가난 때문에 조국을 떠나야 했던 해외동포들에게 서울 G20 정상회의가 주는 의미는 각별하다. 독일로 파견된 광부 출신인 나는 젊은 시절 해외에 나가 성공하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1969년 우연히 본 신문광고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서독에 갈 광부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독일행을 결심했다. 치열한 독일행 관문을 뚫고 3년간 독일 광부로서 지하 1천3백 미터의 갱도에 내려가 하루 8시간씩 석탄을 캤다.

3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다임러 벤츠에 입사했다. 이후 1979년 말 벤츠 회사를 나와 개인사업을 시작했고, 독일 전역에 한국 물품을 대는 도매 사업가로 기반을 쌓을 수 있었다.

사실 내가 독일에 갔을 때는 독일인에게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후진국 정도로 비쳤다. 그러나 올림픽,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대한민국은 이제 보통 독일인들도 알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위상을 지니게 됐다.

독일은 대한민국이 경제발전의 본보기로 삼고, 그 발전상을 연구하고 이식하려 했던 나라다. 그러나 G20 의장국이 된 대한민국은 이제 독일인이 연구하고 배우는 모델이 됐다.

서울 G20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다. 유럽의 많은 한인들은 G20 의장국으로 발전한 조국이 과거에 꿈을 이루기 위해 떠나왔던 나라가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 많은 젊은이들이 찾는 선진국으로 발전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독일 등 유럽 각국의 현지인들은 예전과 달리 대한민국과 주재원, 한인들을 매우 긍정적으로 대하고 있으며 대우도 달라졌다. 나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력이라고 본다.

독일은 물론 유럽의 한인들은 조국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으며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더불어 나를 포함한 유럽의 한인 경제인들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유럽 등 해외시장에서 현지 동포 경제인단체와 합심해 시장 개척에 나선다면 지금보다 훨씬 주도적인 시장 선점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유럽은 물론 미주, 아프리카, 중국 등 대륙별 경제인단체는 대한민국의 현지 진출에 든든한 우군이다. 앞으로 한인 경제인들의 탄탄한 네트워크와 기반을 바탕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대한민국의 국력에 맞는 경제성과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G



방준혁
유럽한인경제인단체
총연합회 회장

Weekly
2010.11.03
No.83(통권 184호)

Contents



표 지 이 야 기

황토 알타리무 수확이 한창이다. 협동해서 트럭에 차곡차곡 무 단을 올리는 농부들의 모습에서 수확의 기쁨이 느껴진다.

사진 ·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조찬익 씨 촬영, 농촌진흥청 제공



20 일러스트 · 이우정



12



32

Weekly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11.03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43

기 획 특 집

새 출발·희망찬 각오
농협, 農心 속으로!

농협중앙회가 내년이면 창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쉰 살이 되는 동안 농협은 우리 농촌과 농업 발전의
중심에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개방시대와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농협은 새로운 도전에 맞설 능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로 몸집을 줄이고
사업 영역은 분리해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공감 라운지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82호(10월 27일자) 기획특집 '규제개혁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과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내용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규제개혁 파이팅!"

"규제의 존재이유는 안정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규제들이 너무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 때문에 국민은 국민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숱한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삶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던 규제들을 누구나 수긍할 만한 합리적 수준으로 개선해 더 행복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만들고 있다니 든든하고 흐뭇합니다."_백연천

"정부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제도 개선과 현장의 애로 개선을 병행하고자 나선 의지만으로도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사실 벌어도 벌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는 서민과 취약계층에겐 규제 자체가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절망의 언덕입니다. 나라가 이들에게 정을 베풀지는 못할망정 고리타분한 규제로 희망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집 걱정, 병원비와 약값 걱정 없이, 또한 과중한 세금 부담 없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개혁이 꼭 이뤄져야 합니다."_성민수

"작은 불편 모두 사라졌으면…"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가 잘못된 규제들에서 비롯된 만큼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합니다."_양은혁

82호 '화제의 인물 / 서민 스타 폴 포츠, 희망을 노래하다'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올해 초 폴 포츠가 '네순 도르마'를 열창하는 모습을 인터넷 동영상으로 본 후 그의 팬이 됐습니다. 그는 노래만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마음씨도 수준급이네요. 바쁜 와중에도 소년원 학생들을 위한 희망나눔 공연을 펼친 폴 포츠. 인기만 좀 있다 싶으면 돈 되는 무대에만 오르려고 하는 연예계의 소위 스타 가수들, 외모 지상주의에 빠진 이 시대의 범인(凡人)들에게 한 수 가르침을 줬을 겁니다."_안정은

82호 '함께하는 다문화 / 다문화가족의 따스한 이웃, 농협' 기사를 보고 독자가 올린 의견입니다.

"제때 나섰다는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농촌과 연결되는 농협이 다문화가정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는 것에 믿음이 갑니다. 다문화 시대로 빠르게 진입하는 요즘, 피부색이 다른 다문화 결혼이민자들이 당당하게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는 것은 국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도 자국에서는 귀한 대접을 받는 국민입니다. 우리만을 고집하며 그들을 내려다보는 건 글로벌화를 주장하는 정부의 노력과는 상치되는 '아집'일 것입니다."_도진우





알립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상상력을 채워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광고 공모전이 개최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이며, 수상작은 향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에 반영된다.



공모 주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비전(세계를 향한 아시아문화의 창)과 미래 모습 표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기대효과에 대한 공감대를 제고하는 내용
참가 대상 | 전 국민
접수 기간 | 11월 22~26일
응모 방법 | 별도 형식 없이 온라인, 방문, 우편으로 출품작 제출. 단, 출품 규격은 신문광고와 잡지광고 중 택일
접수처 |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5-28 스퀘어빌 3층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고 공모전 담당자
수상자 발표 | 12월 7일 홈페이지 게재 예정

문화체육관광부 ☎ 02-3704-3455 cct.go.kr/contest twitter.com/cctcont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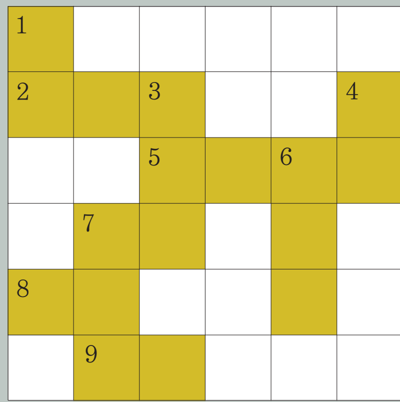
안전한 농업환경 만들어주세요!

안전한 농작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작업 환경개선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10 안전한 농업(Safe Farm)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 부문 | 농작업 안전관리 아이디어 및 농작업 사고·재해예방 사례
참가 대상 | 전 국민
접수 기간 | 11월 7일까지
응모 방법 | 홈페이지에서 제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e메일(seizeaday83@korea.kr) 또는 우편 제출
접수처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 농촌진흥청 지도개발과 농작업 안전 공모 담당자
수상자 발표 | 11월 중순 예정
시상 내용 | 각 부문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에게 상패 및 상금 수여 예정

농촌진흥청 ☎ 031-299-2739 rda.go.kr

공감♥퍼즐



빈칸의 답을 주소, 연락처와 함께 11월 10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2. 경북 경주시에 있는 신라시대 절. KTX 전 구간 개통으로 관광객이 늘어날 전망이죠.
5. 정이 많고 감정이 풍부함. "나를 아껴주는 OOOO한 친구."
7.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캐릭터. 김수정. 아기공룡 OO.
8.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남미의 국가. 얼마 전 광산에 매몰된 33명의 광부를 69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출하기도 했죠.
9. 큰길에서 좁은 길로 들어가는 어귀. 어떤 시기에서 다른 시기로 넘어가는 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OO."

세 로

1. 일이 끝나기 전이나 물건을 받기 전에 미리 돈을 치르는 것.
3. 높은 곳이나 낮은 곳을 오르내릴 때 디딜 수 있도록 만든 기구.
4. 껍질을 벗기고 줄 등에 매달아 말린 감.
6.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가 열린 경북 경주시의 불국사에 있는 탑.
7. 주로 산의 주변을 한 바퀴 돌아 걷기 좋게 만들어놓은 길. 지리산 OOO. 북한산 OOO.

〈Weekly 공감〉 81호(10월 20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3** 구보 **5** 암기 **7** 육상 **8** 수자원 **10** 문전성시
세로 **1** 야구 **2** 영암 **4** 보육원 **6** 기수 **9** 자서전

〈Weekly 공감〉 81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은선·충남 청양군 청양읍 학당리
이상숙·서울 성동구 마장동
최향미·서울 노원구 상계동
탁미자·부산 북구 구포1동
황의범·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자연스럽게 역사 접할 환경 만들어줘야"

지난 7월 국내 대학생들과 함께 선조들이 항일독립투쟁을 펼쳤던 중국 동북 3성 지역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벌써 9회를 맞이하는 '청산리 역사대장정'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아무리 바빠도 매년 참가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대장정에는 제가 안중근 의사와 그의 아들 안준생을 모두 연기했던 연극 〈나는 너다〉 팀도 참가했습니다. 함께 공연했던 연기자와 스태프들은 실제 독립투사들의 활동 무대를 눈으로 보고 활약상을 알고 나니 배역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으며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역사를 접하고 느낄 수 있다면, 우리 역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러스트 · 문지혜

요즘은 학교교육에서 국사가 선택과목으로 밀려나 젊은 세대가 우리 역사를 알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까이하지 않으면 모르게 되고, 모르니 더 멀리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지요.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젊은 세대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대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큰 관심을 보입니다.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설령 잘 모르더라도 더 배우고 싶어 하는 열의가 다들 대단합니다. 대장정 기간 내내 이렇게 많은 학생이 국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제대로 알게 해줄 환경은 너무 부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역사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어떻게든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가운데 51퍼센트가 올해가 경술국치 1백 년인지 몰랐다고 합니다. 또 젊은 세대의 절반 정도는 6·25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지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었답니다.

과거는 미래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외면한다면, 다가올 미래를 무엇을 바탕으로 계획할 수 있을까요. 연극 〈나는 너다〉는 내용상 다른 연극보다 관객들의 연령대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와서 이것저것 설명해주는 부모들, 친구들끼리 온 젊은 대학생 관객들이 곧잘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나라의 희망을 보는 것 같아 마음 한구석이 밝아졌습니다.

선조들의 피와 땀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을 젊은 세대가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젊은 친구들과 함께할 내년 청산리 역사대장정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글 · 송일국(국가보훈처 홍보대사)

공감 ♥ 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이성기 서울 중구 신당동

1. '서민 스타 폴 포츠, 희망을 노래하다'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휴대전화 판매원에서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된 사연을 대강은 알고 있었지만 이번 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그의 삶에 감동했습니다. "꿈은 노력을 가능하게 하고, 노력은 꿈을 이루게 한다"는 그의 말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2. 일상생활, 창업, 기업활동 등 각 분야에서 구태의연한 규제가 사라지고 점점 살기 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자리와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는 부족한 듯하니 앞으로도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3. 정부 정책 홍보기사만이 아니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기사를 좀 더 다뤘으면 합니다.

송승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1. '화제의 인물' 폴 포츠 인터뷰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형 콘서트를 여는 대신 고아원이나 소년원을 찾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과연 세계적인 가수, 꿈의 아이콘답네요.

2. 집에서도 간편하게 회사 설립이 가능한 온라인 재택창업 시스템이 있다는 내용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불편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를 사람과 기업이 활동하기 좋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가는 정부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내며, 그런 규제개혁 정책을 통해 신바람 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3. 날씨가 급작스럽게 추워졌는데 환절기 건강관리법과 옷 입는 법을 소개해주세요.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1월 3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기획특집으로 다룬 '농협, 農心 속으로!'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G20 SEOUL SUMMIT 2010
경제위기 극복의 전환점
서울 G20 정상회의
Korea 2010-2012
VISIT KOREA YEAR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당신의 미소로 한국을 선물하세요"
SMILE KOREA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 김연아
VKC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VISIT KOREA COMMITTEE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문화·인적 교류 및 안보 등 협력관계 심화 발전

이명박 대통령이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해 양측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하고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어진 '아세안+3'와 동아시아 정상회의까지 서울 G20 정상회의 직전 개최된 역내 정상 간 다자회의들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한 역내 공조를 다지는 자리가 됐다.

한·아세안(ASEAN)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다. 이에 따라 첨단 기술을 갖춘 우리나라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아세안 국가 간에 통상과 개발협력, 문화·인적 교류, 안보 등에서의 협력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29일 베트남 하노이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차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 양측의 관계 증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은 회담 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관한 공동선언'과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양측 정상들은 지난해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 착실히 진전돼온 한·아세안 협력관계를 기반 삼아 이날 회의에서 양측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합의한 것이다.

이 대통령,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신설 제안

이 대통령은 아세안 역내 개발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메콩 유역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신설도 제안했다. 아세안 내 메콩 유역국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 등 5개국이다.



10월 29일 베트남 하노이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과 아세안 정상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올해 한·아세안 간의 교역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며,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러한 교역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양측 간 교역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한·아세안 FTA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 간 문화·인적 교류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특히 젊은 세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아세안 지역 장학생 선발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양측 정상들은 '한·아세안 사이버대학'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 정상들은 이와 함께 테러, 마약 등 역내 각종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양측 간 안보대화 등을 통해 향후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 아세안 의장국을 초청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주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이슈 등 새로운 G20 정상회의의 의제에 대한 관심과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아세안 국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아세안 회원국 중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3개국이 서울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이어 곧바로 열린 '아세안+3(한국, 일본, 중국)' 정상회의에서는 상호 유동성 지원을 골자로 지난 3월 발효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체제(CMIM)'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동아시아비전그룹(EAVG Ⅱ)' 구성을 제안했다. 동아시아비전그룹은 아세안+3가 추진해 온 다양한 협력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아세안 정상들, 서울 G20 정상회의 공조 다짐

한국과 일본, 중국은 이날 오후 별도의 정상회담을 열고 동북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과 간 나오토 일본 총리,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간 회담에서는 '3국 협력 사무국 설립'을 포함해 지난 5월 제주 한중일 정상회담에서의 합의결과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은 G20 회원국인 인도의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과 양국 협력증진 방안,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지역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정상은 지난 1월의 '한·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계기로 원자력, 국방·군수, 정보기술(IT), 과학기술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10월 30일 열린 제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 여타 15개국 정상과 금융협력, 기후변화, 재난관리 등 범세계 이슈 및 한반도 정세 등 지역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출범 5년째를 맞는 EAS는 미국과 러시아의 가입을 결정하고 'EAS 5주년 기념 하노이 선언'을 채택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동아DB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추진에 합의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

G20서 무역 불균형 개선 가이드라인 나올 것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서울 G20 정상회의의 전망과 북한에 대한 견해가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10월 29일자 신문에 인터뷰 기사로 소개됐다.

이 신문은 1면에 '한국, 북에 대해 중 개혁개방 방식 따를 것 촉구(South Korea urges North to emulate China's reform model)'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3면에는 머리기사로 '한국, G20 무역 합의 도출에 낙관적(Seoul optimistic on G20 trade pact)'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무역 불균형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것이라는 데에는 낙관하나 수치 목표 설정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자본유출입 추가 대응책 검토 의견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것이 자본통제가 아니라 거시건전성 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의 일환이며, 개별국가의 대응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모든 조치는 국제 협력의 일부이며 G20 정책권고와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해 이 대통령은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 방식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고 "통일세는 국민 모두에게 통일 과제를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중국의 정치적 영향권으로 더 깊숙이 편입될 것이냐, 아니면 내부 분열로 갑자기 붕괴될 것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이 대통령은 "두 가지 경우가 다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북한의 점차적인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동아DB

정부는 저출산 극복대책으로 신혼부부들에게 무주택 기간 제한 없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하고 국민임대주택 미임대분에 대해 입주 우선권 등을 부여하는 등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75조8천억원 투입

저출산·고령사회 진입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플랜이 본격 가동된다. 신혼부부들이 무주택 기간의 제한 없이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기간제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근로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 또한 배우자가 사망한 여성 노인의 유족연금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지난 9월 시안 발표 후 공청회를 통해 여성계와 노동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최종 확정했다.

2차 기본계획에는 5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기금을 포함해 1차 계획(42조2천억원)보다 79퍼센트 늘어난 75조8천억원이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투입될 예정이다.

저출산 분야에 1백2퍼센트 늘어난 39조7천억원을, 고령화 분야에 79퍼센트 증가한 28조3천억원을, 성장동력 분야에는 17퍼센트 늘어난 7조8천억원을 들인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 합동 발표에서 "양육 형태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에 있어 출발선상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3500만원으로 완화

확정된 2차 기본계획은 먼저 저출산 분야에서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보완했다. 특히 국민주택기금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시 가구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혼부부에 한해 무주택 기간 제한이 폐지된다.

또 신혼부부에게는 국민임대주택 미임대분에 대해 입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뭐가 바뀌나

자료·보건복지부

	현행	2차 계획
육아휴직 급여	정액제(월 50만원)	정률제(임금의 4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사업주 재량에 따라	법 제정을 통해 강제
직장 보육시설 미이행 기업 명단 공표제	없음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 명단 공표. 법 개정 후 1년간 유예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연 3000만원(부부 합산)	소득요건 3500만원으로 완화
정년 연장 장려금	정년을 연장한 기업에 1인당 30만원 지급	정년 폐지한 기업에도 지급
보육료 지원	소득 하위 50%까지 보육료 전액 지원	2011년부터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
고령자 주거안정법	없음	제정 추진 (고령자 가구 주거기준 마련 등)
농지연금	없음	도입(농지를 담보로 연금 수령)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별도 기준 없음	수도권 임대주택의 5%(비수도권 3%)

주 우선권이 주어지며, 신혼부부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자격요건(부부 합산 연소득)이 현행 3천만원에서 내년부터 3천5백만원으로 완화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 계속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급격한 인구변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금의 추세가 지속되면 오는 2017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해 2019년에는 총인구가 감소하는 등 향후 10년 안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하다고 보고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시켰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임신 또는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달물품 입찰 심사 시 우대 가산점을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보육시설 운영시간 다양화·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노사합의에 따라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된 기간은 무기계약직(정규직과 계약직의 중간 형태) 전환과 근속기간에서 빼도록 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는 정률제를 도입해 휴직에 따른 임금 손실보전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도입 등은 그대로 확정했다. 또한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양방향 비상계단과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탐지기 등 재해 대비시설을 갖춘 직장 보육시설은 건물 4층 이상에도 둘 수 있도록 층수 제한이 완화된다.

보육시설 운영시간도 반일제, 종일제 등으로 다양화된다. 다만 직장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 공개를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기업부담을 경감해준다는 취지에서다. 경로당이나 주민자치센터, 아파트 내 도서관 등 지역사회의 유휴시설을 활용해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는 것도 최종안에 새롭게 포함됐다.

외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아이 돌보미(베이비시터) 제도화와 초등 돌봄교실 확대 등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도 눈에 띄는 제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의 핵심을 여성 근로자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 교육, 금융, 재정 분야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또 보육료 지원을 위한 부부소득 산정기준도 부부합산 소득의 25퍼센트를 감액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확정된 기본계획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퍼센트에서 소득 하위 70퍼센트로 확대하는 시기를 내년으로 앞당기고,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해주기로 했다.

고령화 대책으로는 중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직업상담 등 취업지원 강화, 사이버 멘터링 등을 통한 전문성 활용 방안과 함께 무배우자 여성 노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유족연금 급여수준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정부는 2차 기본계획의 궁극적 목표가 출산율 제고뿐 아니라 가족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고령자의 활기찬 생활을 보장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0년쯤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인 1.6명 선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 박용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은 "정부는 2차 기본계획을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기본계획의 2백31개 과제에 대해 향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해 미흡한 분야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G

글·정주호(연합뉴스 미디어과학부 기자)



1

안중근 의사 숨결 되살렸습니다

‘하얼빈 의거’ 101주년… 기념관 새 단장

10월 26일 서울 남산광장에서는 ‘하얼빈 의거’ 1백1주년을 맞아 새롭게 문을 연 안중근 의사 기념관 개관식이 열렸다. 옛 기념관 뒤편에 자리한 새 기념관은 건물 면적 3천7백56제곱미터에 지상 2층과 지하 2층 규모로, 2010 서울시 공공건축 부문 최우수 건축상을 받았다.

건물을 장식한 12개의 기둥은 안 의사와 함께 ‘단지(斷指)동맹’을 맺어 자신들의 무명지를 끊고 대한독립을 맹세한 12인을 상징한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면 안 의사의 출생과 성장 과정을 시작으로 독립운동 활동, 하얼빈 의거, 옥중 투쟁과 재판, 순국, 유언 등 안 의사의 일생을 고스란히 관람할 수 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안 의사의 유해가 아직도 고국 땅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개관식에는 안 의사의 손녀인 안연호(73) 씨, 외손녀 황은주(82) 씨 등 유족과 독립운동 관련 단체장, 정·관계 인사, 시민 등 7백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고마쓰 아키오 일본 인간과학연구소 이사장과 히라다 아치시 류코쿠대학 도서관장 등 일본인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는데, 이들은 ‘안중근 사랑’ 회원으로 새 기념관 건립을 위해 많은 성금을 내어 안 의사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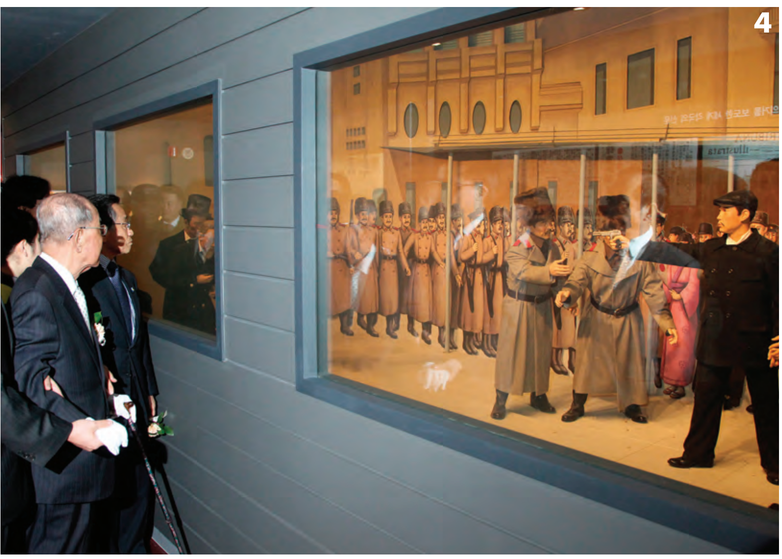
개관식에 보낸 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권을 회복하거든 고국에 뼈를 묻어달라는 안 의사의 말씀을 아직도 받들지 못해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정부는 주변의 모든 나라와 힘을 합쳐 안 의사의 유해를 찾고 모셔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G

글 · 이윤진 기자



3







1 안중근 의사 기념관 지하 1층 로비의 안 의사 좌상. 흰색 명주옷 차림의 안 의사 뒤로 그가 손가락을 잘라 피로 썼다고 알려진 태극기가 걸려 있다.

2 하얼빈 의거 1백1주년 기념일인 10월 26일 오전 11시에 열린 안중근 의사 기념관 개관식에서 참가자들이 안 의사의 뜻을 기리며 묵념하고 있다.

3 기념관 입구에 세워진 안중근 의사의 동상. 높이는 4.5미터로, 발판과 기단부 등을 합하면 7.35미터에 이른다.

4 새 기념관은 국고 1백46억원과 국민성금 34억원 등 1백80억원을 들여 완공됐다. 성금을 낸 각계각층 시민 1만1천55명의 이름은 그 뜻을 기리기 위해 기념관 벽에 새겨졌다.

5 건물 외관은 반투명한 이중 U자형 유리로 구성됐다. 기념관을 설계한 임영환 D·림 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는 “남산의 푸름을 머금으면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드러내도록 U자형 유리를 사용했다”고 설명한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협의

적십자회담서 생사·주소 확인 및 고향 방문사업 등 문제 해결방안 제시

남북한은 10월 26, 27일 열린 남북적십자회담에 이어 11월 25일 차기 적십자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인도주의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상봉은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된다. 또 대북 수해 지원도 이뤄져 남북관계 개선의 끈은 이어지고 있다.

동아DB



10월 26일 북한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열린 남북적십자회담 첫날 오전 회담에서 우리 측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인 김용현 대표단장(오른쪽)과 북측 적십자회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성익 대표단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이 10월 26, 27일 이틀 동안 북한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열렸다. 우리 측에서는 김용현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단장)과 김의도 남북교류실행위원(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 김성근 남북교류팀장이, 북측에서는 최성익 적십자회중앙위원회 부위원장(단장)과 박용일 중앙위원, 조정철 부부장이 각기 대표단으로 나섰다.

남북한 양측은 세 번의 전체회의와 두 번의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 문제를 협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11월 25일 차기 적십자회담을 열어 논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은 상봉 정례화, 생사·주소 확인, 서신 교환,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들의 고향 방문 사업 등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3월부터(겨울철인 12월~2월은 제외) 매월 1회 남북 각각 1백 가족씩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상봉하는 것을 정례화하고, 올해 12월부터 남북 각각 5천명씩 생사·주소 확인 사업을 실시하며, 내년 1월부터 남북 각각 1천명씩 서신 교환 사업을 추진하자고 제의했다.

또 이미 상봉한 가족들의 재상봉과 이산가족들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상시적으로 상봉하는 문제, 내년 4월에 80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들의 고향 방문 사업 등을 제의했다. 이와 함께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면적인 생사 확인을 제기했다.

북측은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함께 인도주의적 협력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쌀 50만 톤과 비료 30만 톤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위해서는 상봉 장소 문제가 결정적으로 풀려야 한다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된 실무회담이 조속히 개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측의 지원 요청에 대해 우리 측은 대규모 지원은 적십자사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당국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북측에 설명했다. 또 금강산 관광은 이산가족 문제와 별개이며, 상봉 정례화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北, 협력사업 활성화 위해 쌀 50만 톤·비료 30만 톤 요청

남북한의 의견차가 확인됨에 따라 우리 측은 차기 적십자회담을 열어 이번 회담에서 논의한 상봉 정례화와 북측의 대규모 지원 요구를 다시 논의하자고 제의해 북측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남북한 쌍방은 이번 회담에서 서로의 요구를 충분히 개진한 만큼 이를 검토한 후 차기 회담에서 계속 협의해나가기로 함으로써 대화의 끈을 놓지 않기로 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용현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

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북측과 협의했으나 북측이 금강산 관광 등 이산가족 상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를 제기해 이번 회담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하지만 차기 회담 일정에는 합의한 만큼 앞으로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금강산에서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고 있다. 남측 방문단 1백명은 11월 3일부터 5일까지 북한의 가족을 만나며, 북측 방문단은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남쪽 가족을 만났다.

이는 지난 9월 11일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제의가 있은 후 남북 간 상봉 장소 문제 등에 이견이 있었지만 3차례에 걸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 끝에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6박7일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

北 수재민 돕기 위해 구호물자 쌀 5천 톤 지원

이를 위해 남북은 각각 2백명의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 교환 및 생사확인 회보서 교환, 최종 명단 교환을 통해 상봉 대상자를 각각 1백명씩 선정했다.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지난해 9월 이후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된 이래 처음으로 진행되는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산가족 1세대 대부분이 80, 90세 이상 고령으로 많은 이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1년여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됐기 때문이다. 이번 상봉에서도 남측 대상자 1백명이 모두 70세 이상이며 이 가운데 80대가 52명으로 가장 많고 90세 이상도 21명이나 된다.

대한적십자사 남북교류팀 최민규 간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기존에 17차례에 걸쳐 진행된 상봉 행사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번 행사가 그동안 경색됐던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신호가 돼 인도적 교류협력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 외에도 남북관계를 이어줄 또 다른 사업도 진행됐다. 북한 수재민을 돕기 위한 첫 구호물자로 쌀 5천 톤이 10월 25일 군산항을 출발했다. 이 쌀은 중국 단둥항을 거쳐 육로를 통해 신의주로 전달된다. 이번 대북 수해물자 지원은 지난 8월 북한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차원에서 1백억원 상당의 수해물자 지원을 제의했고, 이를 북한이 수용해 이뤄졌다.

북한에서는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집중호우가 내려 5천5백60여 가구가 침수됐고, 특히 압록강이 범람해 14명의 인명피해와 1만5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국제적십자연맹은 파악했다.

정부는 쌀 지원에 이어 시멘트 1만 톤(40킬로그램짜리 25만 포대), 컵라면 3백만 개, 기초의약품 등을 12월 23일까지 전달할 예정이다.

글 · 이혜련 기자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10월 25일 북한 수재민을 돕기 위한 쌀 5천 톤이 군산항을 출발했다.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오른쪽) 등 임직원들이 출항하는 배를 배웅하고 있다.



10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중심 원칙 허용 인허가제도 도입방안'과 관련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인허가 '규제 걸림돌' 없앤다

원칙 허용·예외 금지 방식 도입 등 인허가 제도 개선

인허가 제도가 대폭 손질된다. 개인과 기업의 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고 불필요한 예외를 허용하던 방식에서 원칙 허용, 예외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규제체계로 전환하는 것. 이는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불필요한 행정조치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10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 제23차 회의에서는 '국민 중심 원칙 허용 인허가 제도 도입방안'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법제처는 공무원이 아닌 국민 중심의 인허가 제도 전환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제처 방안에 따르면, 1차적으로 원칙 허용, 예외 금지의 인허가 규제 방식이 전면 도입된다. 국민의 영업·행위 중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모두 허용하는 이른바 네거티브 방식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국민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빠른 기술·사회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행정청의 재량을 대폭 축소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법제처는 내년까지 총 3백72건의 인허가 규제를 풀기로 했으며, 이 중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일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 2백 건을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기로 했다.

기부금품 모집 자율성 확대로 나눔문화 활성화

우선, 기부를 하고 싶어도 망설이는 경우가 사라지게 된다. 기부금품 모집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는 것. 현재는 기부금품 모집이 허용되는 사업이 '국제적 구제사업' 등 10여 개로 한정돼 있다. 이는 기부문화 활성화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되는 사업만 규정하고, 그 외는 모두 허용한다. 이를 통해 새롭고 다양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해지게 됐다.

민영 도매시장 개설 및 토지거래 허가도 의무화된다. 기존엔 민영 도매시장 개설과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커 요건이 충족돼도 최종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금지요건만 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허가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허가에 대한 국민 기대 보장, 중소상공인 영업 기반 확대 및 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불합리한 인허가 규정도 폐지한다. 보통 사업자가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연구개발(R&D) 목적의 기기 제작도 마찬가지. 창업의 속도를 늦추고 원활한 기업 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다. 이처럼 반복적, 형식적인 인허가를 막기 위해 시대 변화에 뒤처진 낡은 인허가 규정을 없앤다.

인허가 기준 완화 · 9건의 자동인허가제 도입

내년 6월(법률은 내년 12월)까지 철도용품의 주기적 품질 인증 등 27건을 없앤다. 앞으로 가정마다 달려 있는 계량기의 형식승인도 폐지된다. 10년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갱신허가 서류, 수수료 등 불필요한 승인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유효기간이 폐지되면 연 10억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기계에 대한 승인 규정도 삭제된다. 현재는 건설기계를 제작, 조립,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교통안전공단에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접수 · 처리기간만 해도 15일 이상이 걸리고, 구비서류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 확보 사실 증명서류 등 7가지나 돼 불만 민원이 적잖았다. 형식승인의 폐지로 건설기계 원천 신기술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강한 사전규제를 받거나 경미한 변경에도 인허가를 요구하는 규정도 완화된다. 상호 등 경미한 대상, 경제활동이나 사회 성숙을 위해 사전규제 최소화가 필요한 인허가, 협회 등 비영리단체 설립을 제한하는 인허가 규정 등 15건이 내년 6월까지 신고 또는 등록 사안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그간 기업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근로자공급사업자 명칭과 소재지는 변경신고로 바뀐다. 물류터미널사업협회 설립 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인가를 받는 현행 규정도 등록제로 전환한다. 천일염 제조업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된다.

인허가 기준도 적정하고 투명한 선에서 완화된다. 기준이 불명확하고 행정편의적이거나 업계 현실, 또는 형평에 맞지 않는 22건은 내년 6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그간 소규모 사업체나 사회적 약자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행정청의 자의적 처분을 유발하는 인허가 기준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따르면 실제 중소기업인의 55.8퍼센트가 불명확한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현행 6백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해야 하는 시설 기준으로 과도한 창업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높은 국제회의시설 등록기준 요건은 향후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2008년 기준으로 6백명 이상의 국제회의 개최는 전체 국제회의의 7.5퍼센트 미만임에도 현행 등록기준이 유지돼 사업자들의 초기 투자비용 부담이 컸다. 현행 기준을 폐지할 경우 사업자당 17억원의 투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업무 기준도 확대된다. 현행 규정상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는 의료기관만 알선할 수 있고, 항공권 구매대행 등 외국인 환자 유치에 수반되는 업무는 할 수 없다. 등록기준 자체가 규제 개선을 통한 정부의 의료 서비스 활성화 노력과 배치되고 있는 셈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환자의 유치, 알선 범위를 업계 현실에 맞게 정하기로 했다.

복잡한 인허가 기준도 대폭 개선된다. 시간 지연으로 인한 적기 투자 기회 상실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우선 인허가 처리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7건)된다.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승인 처리기간이 20일이라는 점에서 인허가 처리기간은 20일이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



동아DB

기부금품 모집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새롭고 다양한 기부문화가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DB

외국인 환자 유치 업무 기준도 확대돼 의료기관뿐 아니라 일반 사업자들도 환자 유치와 알선, 관련 사업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했다. 주민의견 수렴 등이 있는 경우에만 20일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허가 처리기간이 지나도록 해당 행정관공서의 응답이 없는 경우엔 자동으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인허가 제도가 도입된다. 9건이 자동인허가 해당 대상이다. 특히 학교시설 건축 승인 규정에는 기존에 인허가 처리기간이 없어 불필요한 낭비가 초래됐으나 자동인허가 제도 도입으로 신속한 학교 설립과 함께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복합 인허가가 필요한 관계기관의 협의기간도 30일에서 20일(31건)로 준다. 또한 협의기간 내 응답하지 않으면 협의된 것으로 보는 협의간주제도(35건)를 확대한다.

복합 인허가 일괄협의체 구성으로 인가 시간 단축

26건에 대해선 복합 인허가 관계기관 모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의무화된다. 일괄협의체가 구성돼 신속한 협의를 추진한다. 인허가권자는 인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인허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 협의체 검토를 통해 인허가 관계기관은 5일 이내에 인허가 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현재는 전통시장 정비사업 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선 무려 15개 기관과의 개별 협의가 필요하다. 관계기관 한 곳이라도 '뜸'을 들이면 전통시장 정비사업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복합 인허가 일괄협의체 구성이 의무화되면 인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속한 전통시장 정비, 경영 현대화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이처럼 현행 인허가 제도의 기본 틀을 전면 수정하면서 ▲사회적 자본의 확충 ▲국민 신뢰와 예측 가능성의 확보 ▲인허가 비용과 행정비용의 대폭 감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따르면, 인허가 규정 27건 폐지 시 2백21억원의 초기 투자비용이 절감된다. 일례로 먹는 해양심층수 인허가 기간을 60일에서 20일로 단축만 해도 사업자당 2억원의 추가 생산을 기대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내년 말까지 시행령, 시행규칙과 법률을 개정하면서 동시에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법제처도 네거티브 규제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서민·공정사회 분야 제도의 뒷받침을 위해 법령 평가를 통한 법제도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G

글 · 유재영 기자

인허가위원회 제도 개선

투명성 위해 위원회 회의록 공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인허가위원회 운영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 장치를 마련하고, 위원이 해당 기관에서 발주하는 직무와 관련된 용역, 공사 등의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연임 및 중복 위촉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또한 청렴성 확보를 위해 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을 자격요건에 명시하기로 했다. 위촉 시엔 사전에 전력 조회를 반드시 실시하며, 민간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했을 때는 공무원에 준하는 벌칙을 적용하도록 개별법상 처벌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신속한 운영을 위해 위원회 심의기간을 설정하며, 규정에 따른 개최 일정 준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 운영 전반에 걸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위원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며,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진술과 이의 신청 등 권리구제수단을 최대한 제공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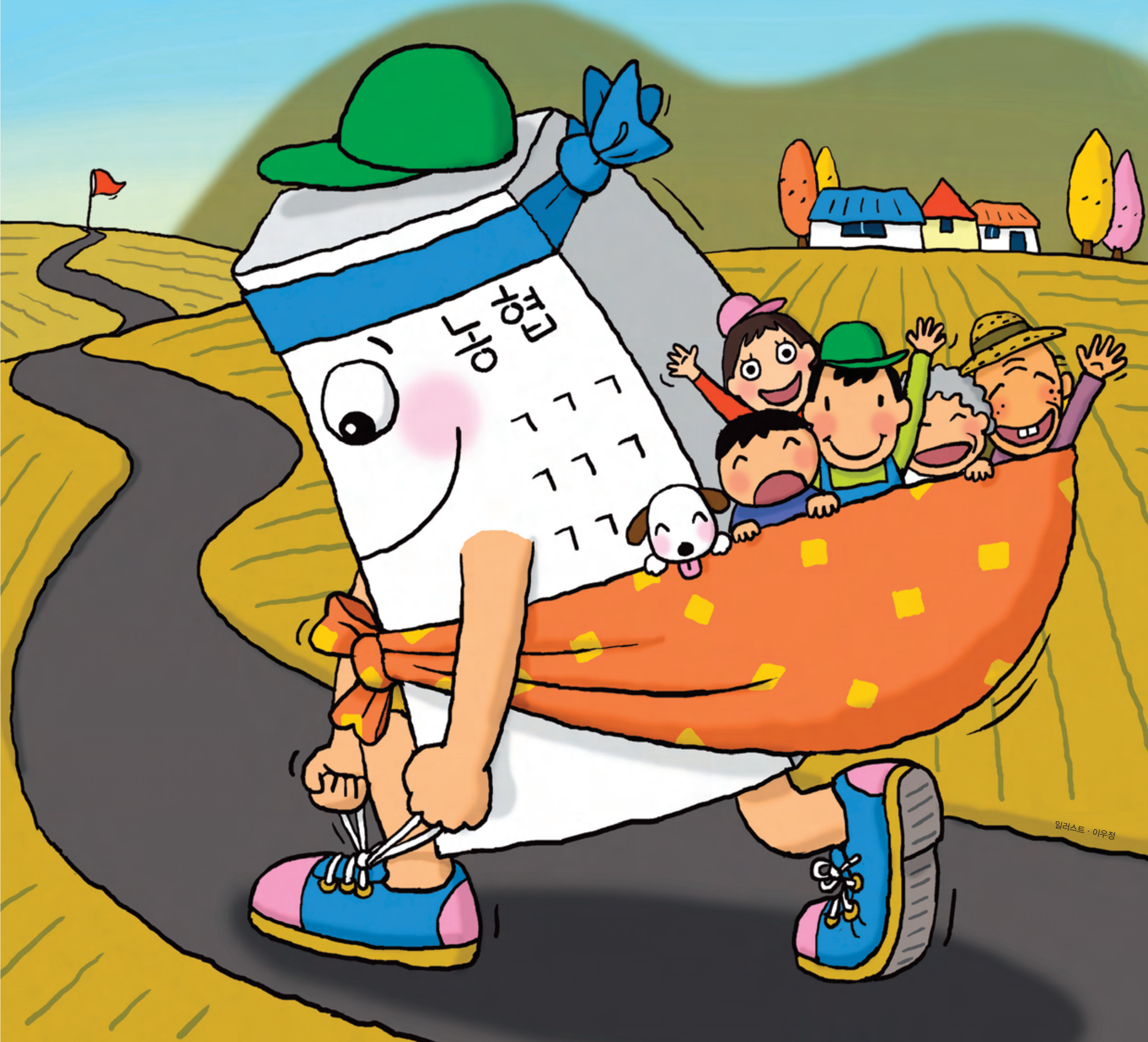
다수결 원칙을 도입해 힘 있는 소수의 의견이 위원회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는 횡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위한 내부 규범도 정하기로 했다.

기 획 특 집

새 출발·희망찬 각오

농협, 農心 속으로!

농협중앙회가 내년이면 창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쉰 살이 되는 동안 농협은 우리 농촌과 농업 발전의 중심에 있어왔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개방시대와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농협은 새로운 도전에 맞설 능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로 몸집을 줄이고
사업 영역은 분리해 농협은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일러스트 · 이우정

농협중앙회 3개 부문으로 독립법인화

연합회·금융·경제로 분리… 농민의 대변자로 거듭나

내년에 출범 50년을 맞이할 농협은 신용사업 부문이 비대하고 농산물 유통 부문은 상대적으로 작아진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된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협중앙회는 3개 법인으로 분리돼 각기 고유 기능을 강화하면서 진정한 농민의 대변자로 거듭나게 된다.



올가을 채소류 가격 폭등은 농민은 물론 도시민들까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 충북 괴산군농업기술센터가 유색벼를 이용해 만든 가로 80미터, 세로 1백 미터의 거대한 상모놀이 모습.

지난 9월 배추값 파동으로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른 것이 농협의 유통구조 개선이다. 정작 산지의 배추값은 비싸지 않은데, 복잡한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주부들의 손에 오는 배추의 가격은 포기당 1만원대까지 오르는 가격 부풀림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농협 사업구조를 바꿔 농산물 유통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다. 배추며 마늘이며 양파며 매년 품목을 바꿔가며 번갈아 들썩이는 채소류 가격 파동이 날 때마다 산지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가격 상승의 열매는 갖지 못하고, 국민은 국민대로 가격 부담의 고초를 겪으면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너나없이 절실한 과제가 돼왔다.

1천1백75개 일선 조합과 일선 조합의 연합체인 농협중앙회로 이뤄진 농협은 임직원 수만 9만7천여 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이다. 농협은 ▲금융 등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신용 부문 ▲농축산물 유통 등의 경제 부문 ▲농민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고 복지를 향상시키는 교육·지원 등 크게 3개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협, 농산물 유통사업 중심으로 체계 전환해야"

그런데 농협중앙회 인력구조를 봐도 전체 인력 2만3천여 명(비정규직 포함) 중 신용사업 부문 인력이 1만6천여 명(71퍼센트)에 이르는 등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보다 신용사업에 치중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농협은 농민단체와 학계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글로벌 개방시대를 맞아 어느 때보다 전문성이 필요한 지금 농협의 현 사업체제로는 경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

기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연구위원은 "농협은 그동안 자체적으로 변화해왔지만 큰 틀에서는 과거 개발시대의 종합농협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시대적 여건 변화에 대처하고 미래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농협의 틀을 만드는 근본 개혁이 필요하다. 핵심 과제는 신용사업 중심의 사업체계에서 농산물 유통사업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는 구조개혁이다"라고 밝혔다.

흔히 '농협개혁'이라 불리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은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다. 1993년 당시 농림수산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농협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농협에서 신용과 경제 부문을 분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은 이후 농협중앙회의 신용과 경제 부문 분리 논의가 정부와 농협 간에 꾸준히 이뤄져왔다.

농협중앙회, 조합원 교육·지원 위주로 기능 재정립

하지만 이해관계자 간 의견 대립과 재원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실질적인 성과 없이 논의만 지속하다 2008년 12월 농림수산식품부가 농협개혁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정부, 농업인, 농민단체, 정치권이 어렵게 농협개혁을 위한 큰 방향에 의견일치를 보았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며 현재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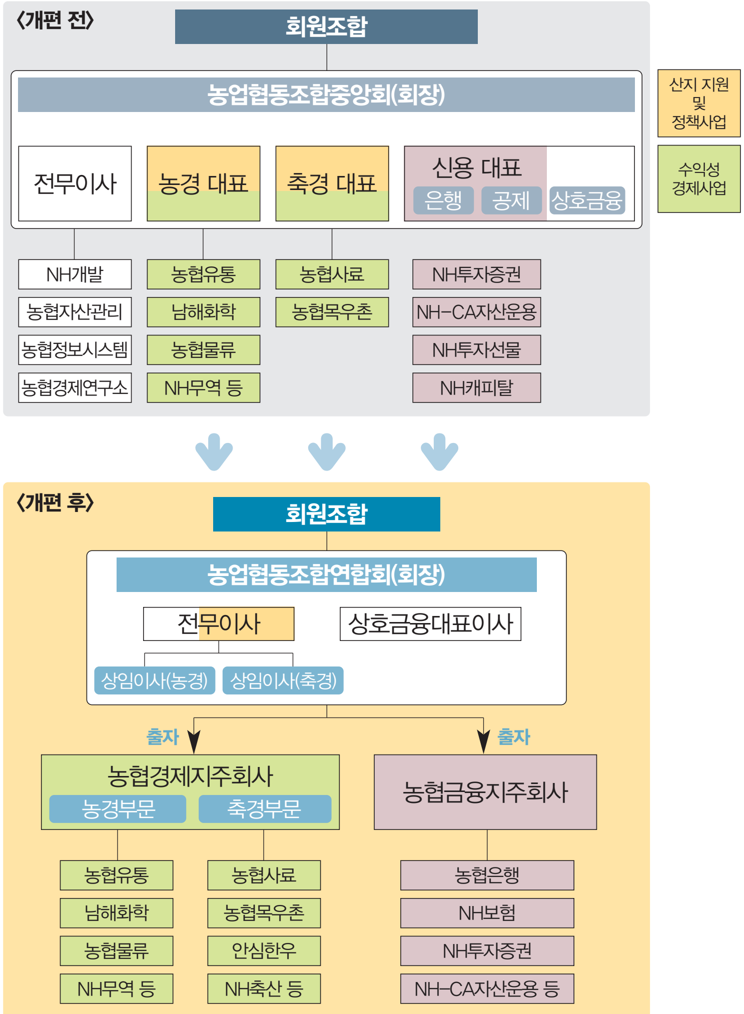
농협 개정안의 핵심은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금융지주회사–경제지주회사로 각각 독립법인화하는 것이다. 농협중앙회의 조직과 기능을 분리해 '농협연합회'로 이름을 바꾸고 조합원을 위한 교육과 지원 위주로 기능을 재정립한다. 또 농협은행과 농협보험을 분리 신설하고, NH증권 등 기존 자회사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해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한다. 경제지주회사는 중앙회 경제사업 중 가공, 유통, 판매 등 사업 부문을 자회사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농협연합회는 협동조합 지원조직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조합이 농협연합회의 주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 부문은 자본 확충, 전문성 제고와 더불어 농업금융기관으로서의 이점을 살려 일반 시중은행 이상의 수익 창출로 조합과 조합원에게 일정 수익을 환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경제 부문은 개별 자회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를 총괄 조정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식품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진출 등으로 수익성 제고가 기대된다.

지난 4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4차례에 걸쳐 농협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신용·경제사업의 사업구조 방식을 '지주회사'로 하는 방안만 합의한 채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개편 전후 조직 구조 비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주축으로 한 '올바른 농협개혁 범국민연대' 한민수 연구팀장은 "이대로 농협법 개정안 통과가 계속 미뤄지면 신용 부문의 자기자본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계속 일선 조합에 우선출자를 요구해 조합과 농협중앙회의 형편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며 "경제 부문 역시 전문성이 결여된 운영이 지속돼 신용과 경제 모두 '식물상태'가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팀장은 "농협의 개혁 방법에 대해선 농민단체나 학자들 간에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지금 칼을 대지 않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절박함을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농협개혁에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기대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 02-500-1751~3 www.mifaff.go.kr


도시민들에게는 휴식과 재충전을, 농업인들에게는 농외소득을 얻게 해주는 농촌체험과 팜스테이 마을 육성도 농협이 추진해온 농업인 지원사업의 하나다.
동아DB

농협,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

협동조합의 정체성 바로 세우기

농협중앙회가 몸집을 줄여 새롭게 바뀐다. 신용과 경제사업이 분리된 농협연합회는 일선 협동조합이 출자해 만든 지원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농민 중심의 효율성 높은 조직으로서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교육과 지원 사업에 주력하게 된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의 핵심이 '신용·경제사업 분리'로 귀결된 데에는 지금의 구조로는 신용사업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결국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과 지원 등 협동조합의 고유 기능마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글로벌한 금융시장 개방시대를 맞아 농협의 신용 부문 순익은 최근 몇 년 새 급격한 하향 곡선을 그려왔다. 농협의 신용 부문 순익은 ▲2006년 1조9백43억원 ▲2007년 1조3천5백21억원 ▲2008년 3천3백4억원 ▲2009년 4천1백47억원 등으로 급감했으며 2010년 들어서도 6월까지 1천5백12억원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 동안 다른 시중은행의 순익 규모를 보면 ▲신한은행 9천6백88억원 ▲기업은행 6천8백34억원 ▲우리은행 4천8백30억원 ▲국민은행 1천7백35억원 등이다.

지속가능한 조합원 지원 위해 경제사업 활성화

게다가 2009년을 기준으로 신용과 경제 부문 수익을 놓고 보면 그나마 신용사업 수익은 4천1백47억원을 기록한 데 비해 경제 부문은 7백57억원의 손실을 낳았다.

이러한 손실은 결국 농협중앙회의 재정상태를 악화시키고

자기자본을 잠식하게 만든다. 그렇게 되면 조합이 부실해지고 결국 모든 조합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를 신용·경제사업으로 분리하고, 회원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경제사업을 활성화하며, 신용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사업구조 개편이 이뤄지게 됐다.

몸집을 줄이고 기능을 '협동조합 고유' 영역으로 특화한 '농협연합회'는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도와 지원, 산지 유통 활성화 및 유통구조 개선 등 협동조합의 고유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농협연합회는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인 권익 증진 및 다양한 농촌 복지사업 ▲도농교류 같은 비수익 사업 및 영농자재 지원과 쌀 수매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 그리고 공익개념이 필요한 사업 등을 전담하게 된다.

"농협중앙회의 목적은 농업인의 소득 제고"

농협은 지금까지 농업인 권익 증진과 농촌복지를 위해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1996~2009년 8만2천6백54명) ▲농업인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2009년 2만4천2백40명)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안정 지원(2009년 모국 방문 5백88명, 다문화 여성대학 교육 4백22명, 이민여성농업인 농업교육 6백28명)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2009년 4만9천2백7명 3백44억원) 및 기숙사 건립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비수익 사업 부문 중 농업인들에게 농외소득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민 팜스테이 체험'은 2009년 말을 기준으로 전국 2백89개 마을이 참여해 2백만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농촌사랑운동의 일환인 '1사1촌 자매결연'은 지난해의 경우 7천7백8쌍이 결연을 했고 교류 인원도 1백19만명에 이르렀다.

이 밖에 영농비용 절감을 위한 농기계은행사업과 비료, 사료, 유류 등 영농자재 지원사업 등도 농협연합회가 계속 수행할 사업이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연합회가 조합과 조합원의 교육·지원사업 재원 조달을 할 수 있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즉 농협중앙회의 주인인 조합원과 조합에게 일정 수익을 돌려주기 위해 자회사를 포함한 출자회사의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 중 일부를 농협연합회의 상호(브랜드) 사용료로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으로 ▲중앙회가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하면서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과 사업체로서의 효율성을 찾게 되고 ▲두 지주회사로부터 얻은 수익으로 산지 유통개선 등 농업인의 생산·판매활동 지원을 강화하게 되며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유통과 판매는 농협이 전담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협동조합 고유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구조개편기획부 신종현 구조기획팀장은 "개편되는 농협중앙회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농업인이 생산하는 농축산물을 어떻게 잘 팔아서 그 혜택이 좀 더 많이 농업인에게 돌아가게 하는가 하는 농업인 소득 제고"라며 "앞으로 농협은 농촌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신사업개발 등을 통해 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에 역점을 둬 더욱 나은 해답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동아DB

농협중앙회가 개편되면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수익 제고 역할이 더욱 강화된다. 사진은 농협중앙회가 홈플러스와 함께 서울 영등포에서 개최한 한우 시식회.

농협중앙회 신용·경제사업 분리 추진 과정

연월	주요 내용
1993. 3	농림수산부, 한국농촌경제연구소 연구용역 결과 농업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신용·경제사업 분리 검토
1994. 12	농협법 개정. 신용사업의 분리·통합 및 별도법인 설립 근거 마련
1999. 9	통합 농협법 제정 공표. 농협중앙회와 신·경사업 분리 추진 부칙 신설
2000. 9	신·경분리추진협의회 설치 한국금융연구원에 신·경사업 분리 타당성 조사 용역 의뢰
2003. 3	정부, 자율적 농협개혁 유도하고 신·경사업 분리 단계적 추진 공표. 농협개혁위원회(농협) 설치
2004. 12	농협법 개정 공표. 농협중앙회의 신·경사업 분리계획 1년 내 제출키로
2005. 5	농협중앙회, 신·경 분리 세부 추진계획 연구용역
2006. 9	신·경분리위원회(농림부) 설치. 농협중앙회 제출안 검토 및 각계 의견 수렴
2008. 12	농협개혁위원회(농림수산식품부) 설치
2009. 3	농협개혁위원회,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경제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의 3개 법인으로 분리하는 내용의 건의안 제출
2009. 10	농협법 개정안 입법 예고
2009. 12	농협법 개정안 국회 제출

경제사업 활성화로 유통 경쟁력 키운다

농협중앙회,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 팔아주는 조직으로 개편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경제사업 활성화다. 그동안 일선 조합의 지원 기능에 머물던 농협중앙회를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팔아주는 조직으로 바꿔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농협이 책임지는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수입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유통업체는 하루가 다르게 대형화되고 있는데, 영세 고령농이 대부분인 농업 생산현장은 소비지에서 원하는 농산물을 공급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여기에 전국 2백45만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둔 농협의 역할이 있다.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에서 20년째 농사를 짓고 있는 이종남(가명·56) 씨는 농협에 농산물을 출하하지 않고 매일 아침 주문받은 농작물을 수확해놓으면 도매상인들이 찾아와 수거해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씨는 "농협에서 유통을 책임져주면 농민이 판매에 신경 쓰지 않고 좋은 조건으로 팔 수 있을 텐데…" 하고 말끝을 흐렸다.

농민들의 불만에는 이유가 있다. 농협중앙회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회원조합에 대한 교육·지원기능을 수행하면서 인력의 75퍼센트 이상을 신용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양구군청

농협의 지도 아래 전국 1천2백78개 멜론 재배농가가 참여한 전국 연합 멜론 브랜드 K-멜론의 사례는 농협개혁의 방향을 일깨워준다.

이에 반해 도매, 물류 등의 농산물 가격과 물량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한 협동조합 본연의 업무인 판매, 유통은 소홀히 하고 신용사업 수익금으로 회원조합을 지원하는 부수적 기능에 치중하고 있다. 최근 농산물 도매기능을 강화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는 회원조합을 통해 출하된 생산물을 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등 농협 계통 판매망을 통해 분산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일선 조합 또한 농산물 수매, 정책자금 배분 등 정책사업 대행에 익숙하고 조합단위 분산 출하로 출혈경쟁 및 투자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실제로 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2백34개 중 매출액 1백억원 이상은 19퍼센트인 45개소에 그쳐 읍면 단위조합 구조상 판매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농민들이 농협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K-멜론(K-Melon) 사례를 보면 농협에도 희망이 있다. K-멜론은 전국 연합 멜론 브랜드다. 대한민국(Korea)의 대표 멜론, 멜론의 왕(King)이라는 의미를 담아 올해 6월 출범했다. K-멜론에는 전국 1천2백78개 멜론 재배농가가 23개 지역 농협과 12개 시군연합사업단, 24개 공동계산조직을 통해 참여하고 있다.

'판매 중심 농협' 실현으로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

단순히 브랜드만 통합한 것이 아니다. 농협중앙회는 전국의 멜론 산지를 연계해 산지별 파종 시기와 수확 물량을 조절하고 재배방법을 통일해 연중 균일한 멜론을 생산하는 동시에 거래처 선정과 가격협상을 책임진다.

지역조합에서는 재배 농가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물량 수집 등을 담당한다. 지금까지는 산지 간에 출하시기가 겹쳐 가격변동이 심했고 이런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이런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매뉴얼에 따른

재배를 의무화했고, 전문판정단에 의해 멜론이 가장 맛있을 때 수확하고, 품질관리 기준을 통과한 멜론만을 시장에 유통시키기로 농가 스스로 합의했다.

이 같은 시스템을 통해 생산되는 K-멜론은 일반 멜론보다 30~60퍼센트 높은 가격에 팔리면서 올해 10월 중순까지 9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K-멜론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농협개혁 방향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협과 공동으로 농가에게 유리한 판매기회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판매 중심 농협'을 실현하기 위한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산지조직-판매회사-소비지로 연결되는 수직계열화 유통체계를 구축해 농협이 농산물 50퍼센트 이상의 출하권을 가지고 실질적인 거래 교섭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산지 농산물 계약출하 체계 구축 · 공동계산조직 육성

정부가 구상 중인 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농산물을 직접 팔아주는 판매조직으로 개편된다. 먼저 품목별로 도매·물류기능을 수행할 중앙단위 판매조직이 만들어진다. 사업 수행방식도 중앙회가 직접 농가 조직화와 산지 유통조직 육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청과 부문은 2020년까지 도매 유통 점유에서 55퍼센트(7조9천억원)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3개 지역의 거점 도매물류센터와 전국 통합경매를 통해 물량 결집 및 가격 교섭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농산물 분산 기능을 전담해 도매시장 기능까지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축산은 2020년까지 한우 도축량의 55퍼센트, 돼지의 경우 40퍼센트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육방법을 통일하고 도축·가공·물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안심한우' '안심포크' '안심계란' 등 축산물 종류별 판매조직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한다는 것이다. 쌀 판매조직은 2020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쌀 유통의 45퍼센트(3조2천억원)를 점유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산지 농산물 계약출하 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으로 광역단위 공동사업법인과 계약출하, 수탁판매 중심의 회원제 공동계산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들 조직은 중앙회 판매법인과의 출하 계약 등을 통해 안정적 판로를 보장받고 품질관리, 선별, 가공 등의 역할을 함으로써 수익을 내게 된다.

정부는 농협, 농업인단체, 학계 등이 참여한 가운데 좀 더 구체적인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자회사화 계획, 회원조합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경제사업 투자계획 등도 포함된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이시혜 서기관은 "농협 경제사업이 활성화되면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농협이 전담함으로써 농업인은 농산물을 제값에 팔 수 있게 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 이혜련 기자



농협은 최근 농산물 도매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역 조합을 통해 출하된 생산물을 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등 농협 계통 판매망을 통해 분산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으로 신용사업 강화

금융 4개 자회사·신설되는 3개사 편입으로 전문성·경쟁력 확보

겸업화, 대형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수익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협의 신용사업을 총괄할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된다. 농협금융지주회사는 금융 부문의 기존 4개 자회사와 신설되는 농협은행 등 3개사를 편입해 농업인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업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철 기자



농협 직원이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면 농업인을 위한 보험상품의 종류와 혜택이 늘어나 농촌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

겸업화, 대형화,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금융산업계의 메가트렌드에 부응하려면 농협에도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절실하다.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상품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사업 부문 간 시너지 효과 창출, 금융회사 간 무한경쟁 등을 통해 금융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협의 신용사업 부문은 2009년 말 기준으로 농업·임업·어업 부문 예금은행 총대출금 15조1천억원 중 11조9천억원(79.6퍼센트) 수준을 공급하는 농업 부문 전문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농협중앙회에서만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농업인 재해보험인 농·임업인안전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이 있다.

농·임업인안전보험은 농·임업인만 가입할 수 있다. 농·임업인의 작업 도중에 발생한 재해는 물론 일반재해 등 각종 재해사고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장점이다. 지난해 말까지 14년간 총 9백61만3천명(연평균 68만7천명)의 농업인이 가입했으며 사망한 피해자에게는 보상금이 최고 6천만원까지 지급됐다.

금융지주회사 설립으로 금융환경 변화에 효율적 대응

농기계종합보험은 농업인이 농기계를 운행하다 발생한 사고를 종합적으로 보장한다. 트랙터, 콤바인 등 12종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한다.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물론이고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었을 때는 최고 5천만원까지, 농기계가 손상됐을 때는 가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한다. 지난해 말까지 14년 동안 총 28만3천 건(연평균 2만 건)의 가입 실적을 올렸으며 올해도 농업인 재해보험에 예산 3백32억원이 지원된다.

보험료의 50퍼센트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이들 보험상품은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실을 하고 있다. 농협은 이들 상품의 판매를 시작한 199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1만8천 건에 2천8백64억원의 재해보험금을 지급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했다.

그런데 농협법이 개정돼 사업구조가 개편되면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보험상품의 종류가 더욱 다양해지고 혜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 보험업 등 신용사업을 농협금융지주회사에서 도맡게 되기 때문이다.

농협금융지주회사에는 농협중앙회에서 독립법인으로 분리된 신용사업 부문의 기존 4개 자회사(NHCA자산운용, NH투자선물, NH투자증권, NH캐피탈)와 신설되는 3개사(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가 편입된다.

정부가 신용사업을 담당할 금융지주회사를 따로 설립하려는 일차적 목적은 사업 부문별 전문성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정부는 경제사업의 비중을 늘리려는 사업개편의 취지와 신용사업의 경쟁력 제고, 농협의 중·장기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도입했다.

"기존 농협 체제의 한계 넘어 전문성·책임성 높이는 계기"

2000년 11월 처음 국내에 도입된 금융지주회사 체제는 금융산업을 선도할 새로운 시스템으로 정착했다. 농협을 제외한 5대 시중은행(우리, 신한, 하나, 국민, SC제일은행)과 산업은행이 이미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으며 기업은행, 씨티은행, 대구은행 등은 이 체제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농협의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독립법인으로 분리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데는 수익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금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체제의 도입으로 자회사의 부실이 모회사의 부실로 이어지고 독립성이 제한적인 자회사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유연한 자본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성장기반 마련, 고수익사업 발굴에 따른 영업이익률 제고 등을 통해 수익센터로서의 기능도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변혜중 사무관은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의 분리는 기존 농협 체제의 한계를 넘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를 통해 농협금융지주회사는 향후 글로벌 농업 부문의 전문 금융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동아DB



농협의 신용사업을 담당할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생기면 벼를 수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망도 한층 커지고 촘촘해진다. 대형 콤바인으로 벼를 거둬들이고 있는 충남 서산시 부석면의 한 농장.

한편 정부는 농협의 보험업 진출 허용에 따른 특혜 논란과 보험업계와의 마찰을 매듭짓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농협,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많은 고민 끝에 정부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또 사업구조 개편으로 기존 농협 공제사업이 보험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험업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이 제도는 신설되는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이 입법예고일(2009년 10월 28일) 현재 판매하고 있는 공제상품에 상응하는 보험종목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방카슈랑스 룰' 적용을 5년간 유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카슈랑스 룰의 요지는 이렇다. 한 회사당 판매비율 25퍼센트 제한, 점포 외 모집행위 금지, 창구 판매자 2인 이내, 판매 가능 상품 제한(저축성 보험, 질병·상해·간병에 관한 제3보험만 가능)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

정부는 농협이 현재 보험상품과 유사한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므로 공제사업을 보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변혜중 사무관은 "정부 법안에 당장은 만족할 수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농협과 보험업계는 물론 국민에게도 이익이 되는 상생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협은 새로운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고, 농협 공제사업에도 다른 보험사와 동일한 법규가 적용됨에 따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지며, 농업인에게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G

글 · 김지영 기자

"사업구조 개편은 농산물 가격 안정에도 기여"

이양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주목받는 인물이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이양호 농업정책국장이다. 농협법 개정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휘하고 있는 이 국장은 "농협 사업구조가 개편되면 농협의 전문성이 강화돼 농업인은 물론 농축산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영철 기자



이양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하고, 농업인과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려면 농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농축산물 유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은 요즘 비상이다. 온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배추값 급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데다 국회 내에서 농업정책국이 주축이 되어 추진 중인 농협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이양호 농업정책국장은 "배추, 마늘 등 채소류 가격이 급상승해 산지 농민과 국민들이 고초를 겪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사회 각 분야에서 경쟁 또는 융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유독 농산물 유통 분야에서는 시장 기능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또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임을 강조하며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가 개편돼 유통 부문이 활성화되면 배추값 폭등과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협법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해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농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원래 농협은 상호부조의 정신을 모태로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출범한 지 50년이 지난 지금 금융 부문이 사실상 비대해졌고 유통을 맡고 있는 경제 부문은 상대적으로 작아졌습니다. 농협법을 개정하면 농협의 금융 부문과 경제사업 부문이 분리되면서 유통사업을 독립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농축산물 가격 안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농협법 개정안에 대한 농협 내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농협 사업구조 개편 당사자인 농협 내부에서 일부 우려가 있

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논의 초기에 농협은 신용 부문이 새로운 금융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금융사업을 먼저 분리하되 경제사업은 그 다음에 추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회가 하고 있는 사업을 자회사로 분리해 시행할 경우 적자가 날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제사업 부문의 자회사화 등 경제사업 활성화계획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이므로, 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사업이 부실해져 조합 지원이 줄어드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충분히 협의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해 국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사업 분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족자본금 조달, 조세 지원 문제 등입니다. 국회에서는 농협법 개정 전에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규모를 확정하라는 입장입니다. 총론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거든요. 각론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차피 농협법 개정은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큰 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금융사업의 자본금 지원 문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배분 등 구체적인 방안은 법 개정 이후 사업구조 개편 준비위원회에서 농민단체, 농협, 학계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것입니다.

부족한 자본금에 대한 지원계획이 궁금합니다.

농협법에 따라 중앙회 전체 자본금을 신용사업 부문의 자본금으로 인정받아왔는데, 앞으로 농협중앙회 내부 조직으로 있는 신용사업 부문을 독립법인으로 분리하게 되면 이러한 자본금 특례를 더 이상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농협연합회, 농협은행, 경제지주가 각각 자본금을 보유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보다 많은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금은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율성 유지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농협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자체 조달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조달이 어려울 때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세 지원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법 개정안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등 금융 부문과 경제사업 부문을 분리하면 조세 문제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농협에서는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추가 조세 부담이 없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추가로 세금을 낼 경우, 농업인이나 조합에 지원할 재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 목적이 세금을 더 걷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법 개정은 국회에서 사업 분리가 확정돼야 가능합니다.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바로 세법 개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농협법 개정과 사업 분리 시점까지 1년여의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세법을 개정해 조세 특례를 반영해도 늦지 않습니다.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금은 농협이 자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자본금 조달이 어려울 때는 정부가 지원할 것입니다. 또 사업구조 개편으로 농협이 감당해야 하는 추가 조세도 최대한 지원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최근 금융위기 이후 신용사업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구조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으로 분리되면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여 농협 수익센터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더욱 많은 이익을 농업인과 조합에 환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좀 더 질 좋은 농축산물을 안정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봅니다.

사업구조 개편이 배추값 파동 같은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배추의 경우 중간상인들이 농약이나 비료 등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배추를 현지가격으로 가져옵니다. 일명 ‘밭떼기’라고도 합니다. 중간상인들은 산지가격에다 그동안 들인 농약·비료값, 운송비, 창고비 같은 비용을 추가합니다. 화물차에 싣고 내릴 때 드는 인건비도 포함시키고요. 산지마다 가격차가 조금이라도 나면 서로 사고팔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후변화 등으로 생산량이 조금만 변해도 가격변동이 큽니다.

농협의 경제사업에 거는 기대가 큰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을 농협이 일정 부분 담당했다면 배추값 파동을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중간상인들과 유통·도매시장이 소비자와의 상생관계 유지보다는 각자의 이익 추구에 몰입해 경직돼 있는 문제를 해소하려면 농협이 유통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중간상인, 도매, 소매로 이어지는 기존의 유통구조에서 농협 유통회사가 산지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내면 상호 경쟁과 보완을 통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G

글 · 김지영 기자

농협법 개정, 농업·농촌의 도약 위한 디딤돌

농협이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보다는 수익이 나는 금융사업에 치중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의 이유

농협은 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1961년 설립됐다. 그동안 중앙회와 1천1백75개 일선 조합 임직원 수가 9만7천여 명에 이르는 거대 조직으로 성장했다.

현재 농협중앙회는 교육·지도 및 지원, 은행·공제 등 신용사업, 농축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수익이 나는 신용사업에 치중해 농축산물 유통, 판매 등 농업인 소득과 연결되는 경제사업에는 소홀해 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에 위기를 맞았다.

또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혼재하고 자본, 회계 및 인사가 엄격히 분리되지 않아 임직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떨어지고 경영의 투명성이 약화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최근 농협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와 농산물 유통 문제 등이 대두되면서 농협을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

사업구조 개편 진행 상황

정부는 2008년 12월부터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농협은 물론 농업인, 농민단체, 정치권 등의 논의를 통해 의견 일치를 이뤄냈다. 1단계로 운영구조 개선을 위한 농협법 개정을 지난해 완료했고, 올해는 2단계로 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사업을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으로 분리하는 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됐으며 올해 2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 후 법률안 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농협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 당장 내년 경제사업 등 사업계획 수립과 수행에 문제가 생기고 그 피해가 농업인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정부와 당사자인 농협은 올해 안에 농협법 처리가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신용사업·경제사업 동시 분리, 문제없나

경제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해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중앙회가 수행 중인 사업을 무리하게 자회사로 분리할 경우 적자 발생에 따른 사업 부실화 등이 우려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법 시행과 동시에 설립하더라도 중앙회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자회사화는 조합과의 연계 정도 및 분리 시 문제점 등 개별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지주회사 설립으로 사업 부실화나 조합원 지위 위축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농협의 보험업 진출 허용

농협은 지난 50년간 농협법에 따라 보험상품과 유사한 공제상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나 보험업 전환에 따른 새로운 규율에 순조롭게 적응하기 위해 경과조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우선 현재 취급하는 공제종목에 한해 허가하고, 자동차·변액보험은 별도의 인허가를 받아야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본적으로 농협이 공제사업자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포기하고 보험업법 규제 적용 등 시장경쟁 체제로 이행하는 것이다.

사업구조 개편으로 달라지는 것들

농협중앙회가 농협연합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등 3개의 독립법인으로 분리된다. 일선 조합의 대표조직으로 농협연합회를 두고, 농협연합회는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각각 설립한다.

농협연합회는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조합(원) 지원, 산지유통 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등 협동조합의 고유 목적사업을 전담한다. 또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농협' 또는 'NH' 명칭 사용료를 부과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중앙회가 수행 중인 농축산물 도·소매, 식품·가공, 물류 등 수익 목적의 경제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담당한다. 농협유통, 농협목우촌 등 중앙회 경제부문 자회사(13개)와 중앙회가 직접 수행 중인 수익 목적의 경제사업을 순차적으로 경제지주회사에 편입할 계획이다.

은행업, 보험 등 신용사업은 자회사인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수행한다.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을 중앙회에서 분리해 농협은행(농협법에 따른 특수은행)과 농협보험사(생명, 손해)를 각각 신설하고 NH투자증권 등 기존 자회사와 함께 금융지주에 편입하는 것이다.



이번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의 핵심은 농협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수익구조를 개선해 농업인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농협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농협중앙회가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되고, 수익사업을 전문화해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그 이익을 산지유통 개선 등에 사용해 농업인의 생산 및 판매활동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

농업인은 생산에 전념하고 유통, 판매는 농협이 전담함으로써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 신용사업은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다른 금융회사 수준의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좀 더 많은 이익을 농업인과 조합에 돌려주는 농협 수익센터로서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다.

정부는 농협법 개정 등 농협 개혁의 제도적 틀이 완성되면 농업인들이 개혁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업 분리 전까지 농업인, 농협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G

글 · 이혜련 기자 / 일러스트 · 이우정



경주 G20, 서울 정상회의 성공 발판

환율 갈등 일단락… 美·中 경주 코뮈니케 발표에 합의

최근 미국과 중국 간에 첨예한 갈등을 빚으며 글로벌 경제의 핫이슈가 됐던 환율 문제가 우리나라의 중재로 일단락됐다. 10월 22, 23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환율 문제로 충돌하던 미국과 중국이 중재안을 받아들이며 '경주 코뮈니케(성명서)' 발표에 합의,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예고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우리 정부 중재로 미국과 중국이 한 발씩 양보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던 '환율전쟁' 의 불길이 잡혔다.

10월 22, 23일 이틀간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는 이에 따라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가는 길목에 가장 큰 걸림돌이던 환율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Market Determined Exchange Rate System) 이행'과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6퍼센트 포인트 이상 신흥개도국 이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코뮈니케)를 발표했다.

지난 9월 말부터 급부상한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 문제는 우리나라가 마련한 '경상수지 목표제'라는 중재안을 바탕으로 미국이 위안화 절상 요구에서 벗어나 "경상수지 흑자 규모



10월 22일 경북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

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자"고 주장했고, 중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급진전했다.

미국은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위안화 절상 요구 대신 경상수지 목표제를 주장해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냈고, 대신 IMF 지분 약 1퍼센트 포인트를 양보해 중국이 2퍼센트 포인트 이상 지분을 더 가져가도록 하는 발판이 돼줬다. 중국은 이에 따라 국제경제 무대에서 발언권이 더 커지게 됐다.

경주 코뮈니케에 서울 비즈니스 서밋 내용 포함

미국과 중국 간 환율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면서 G20 재무장관들은 '시장 결정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시장의 위안화 절상 요구를 무시하기 힘들어졌고, 최근 '슈퍼엔고' 현상으로 인해 외환시장 개입 여지가 많은 일본도 공개적으로 엔화 가치를 낮추기 어려워졌다.

G20 재무장관들은 또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경상수지 불균형을 시정한다'



연합

이명박 대통령 환율 문제 해결방안 독려

"합의 못 이루면 귀국 비행기 없다"


연합

"여러분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귀국 비행기를 안 띄울지도 모릅니다."

지난 10월 22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개막식. 이명박 대통령은 환영 연설을 원래 원고에도 없던 이 같은 농담으로 시작했다. 갑작스런 이 대통령의 '협박성 농담'에 회의장은 웃음바다가 됐다. 미국과 중국 간의 환율전쟁으로 바짝 긴장됐던 회의장 분위기가 확 풀어지는 순간이었다.

이 대통령의 농담효과는 이후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공항 폐쇄 발언의 효과가 있었다"고 웃으며 말할 정도였다.

지난 8월 말 IMF 이사회가 한국 주도로 탄력대출제도 개선안을 통과시킨 뒤 서울 G20 정상회의를 향한 발걸음은 순조로웠다. 하지만 9월 말부터 미국과 중국 간 환율 갈등이 첨예화하면서 '환율전쟁'이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협하는 암초가 됐다. 애써 유치한 서울 G20 정상회의가 환율 전쟁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다.

이 대통령은 G20 관련 참모들에게 환율 문제 해결방안을 찾으라고 독려했고,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를 함께 제기해 환율 문제를 간접적으로 해결하자'는 중재안을 마련했다.

사공일 위원장은 미국의 로런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만나 중재안을 내놓았고, 결국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경주회의 개막 직전 '향후 수년간 대외수지 불균형을 국내총생산(GDP)의 일정 수준으로 줄이자'는 서신을 참가국들에게 돌리면서 환율 문제 해결은 출구를 찾게 됐다.

IMF 쿼터 조정의 경우도 이 대통령이 스트로칸 IMF 총재에게 여러 차례 직접 전화를 하고 사공일 위원장이 워싱턴 출장 때마다 IMF 측과 협의를 한 노력이 이룬 성과다. 특히 탄력대출제도 개선 등을 포함한 IMF 제도 개선은 한국의 금융위기 극복 경험이 IMF와 미국, 유럽 국가들을 설득하는 배경이 돼줬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9월 말 G20 회원국을 순방하며 각국의 의견차를 줄이는 데 주력했으며 경주 회의 참석차 방한한 캐나다, 미국, 프랑스 재무장관과 연이어 양자회담을 가지며 주요 의제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가 서울 G20 정상회의 이전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펼쳤다.

이처럼 이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G20 관계자들의 회의장 안팎 노력으로 경주 합의가 도출됐고, 서울 G20 정상회의로 향하는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조용철 기자

일본 진출 걸그룹 중 처음으로 오리콘 차트에서 1위에 오른 소녀시대 멤버들이 G20 서포터스로 참여해 10월 25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밀레니엄광장에서 'G20 정상에게 말하세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코뮈니케 주요 내용

주제	내용
환율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로 이행, 경쟁적인 통화절하 자제
	신흥국 자본시장에 과도한 변화 가져오는 선진국의 과도한 환율 변동성 경계
무역	모든 형태의 무역 보호조치 배격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경상수지 목표제 운영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경상수지 불균형 원인 평가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종합행동계획을 마련해 서울 G20 정상회의 때 제출
금융규제 개혁	바젤위원회가 서울회의(10월 19, 20일) 개최 후 발표한 자본건전성 강화 환영하고 이행 약속
	'대마불사(大馬不死)' 문제 해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제안한 글로벌 금융사에 대한 감독·규제 강화 제안 채택
	장외파생상품시장, 보상관행, 회계기준 등 그간 G20가 합의한 모든 금융규제 개혁 의제 이행 약속
IMF 개혁	IMF 쿼터 및 거버넌스 개혁에 합의
	2012년까지 선진국이 신흥개도국에 지분의 6%포인트 이상 이전
	24명의 IMF 이사 중 유럽국가에서 신흥개도국으로 2명 이전
글로벌 금융안전망	탄력대출제도(FCL) 등 최근의 IMF 제도 개선 조치 환영
	IMF에 추가 개선 작업 요청
개발 이슈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을 위한 G20 워킹(실무)그룹의 다년간 행동계획 작성 기대
	국제개발협회(IDA)에 대한 재원 보충 약속 재확인
비즈니스 서밋	공공·민간의 파트너십 향상을 위한 비즈니스 서밋의 12개 워킹그룹 작업 환영

*바젤위원회: G10의 중앙은행 및 은행감독 당국 대표들로 구성된 위원회. 3개월마다 국제결제은행(BIS) 회의를 열고 각국의 감독 당국이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제시.

는 데에도 합의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혹은 적자 비율을 정하는 '경상수지 목표제' 개념을 G20 성명서에 처음 포함시킨 것이며, 이에 따라 환율 문제는 경상수지 규모에 따라 간접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로 원화 안정성 높아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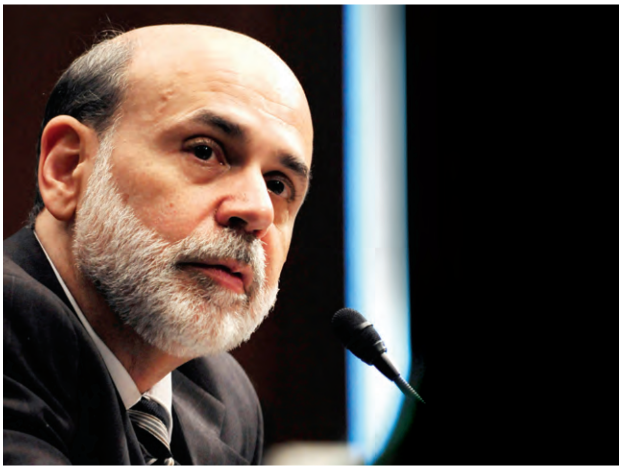
이들은 이와 함께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간에 의견이 맞섰던 IMF 지분을 2012년 IMF 연차총회 때까지 신흥개도국으로 6퍼센트 포인트 이상 넘기기로 했으며, 24명의 이사 중 유럽 이사 2명을 줄이고 신흥개도국 이사를 늘리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는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IMF 지분 5퍼센트 포인트 이상 이전'에 합의했던 것에서 1퍼센트 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이번 성명서에는 또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워킹그룹의 작업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고 우리가 주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이슈에 대한 항목이 들어가는 등 G20를 배경으로 그동안 우리 정부가 벌여온 노력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각국이 이번 '경주 코뮈니케'를 둘러싸고 자국의 이해득실 계산에 분주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연합



AFP

경주 G20 회의에는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위),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아래) 등 세계 경제계의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G20 국가 최초로 초당적 결의안 채택

국회가 10월 25일 본회의를 열어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지지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날 여야 재적의원 2백37명 가운데 2백18명(기권 12명, 반대 7명)이 결의안에 찬성했다.

국회는 이날 결의안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세계를 향한 대진출(大進出)의 획기적 계기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서울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초당적 지원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한 8천만 한민족의 지지와 협력 촉구 ▲글로벌 파트너십을 위한 국회 차원의 역할 수행과 서울 G20 정상회의 관련 국가 의회에 대한 동참 촉구 ▲한국의 선진국과 개도국 간 공정한 가교 역할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입법부 차원에서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은 G20 정상회의 역사상 처음이다. G20 개최국인 미국(1차, 3차), 영국(2차), 캐나다(4차)에서는 공식적으로 입법부가 결의문을 채택한 전례가 없다. 이번 결의안은 박희태 국회의장이 주도적으로 추진했으며, 10월 22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결의안 채택에 합의했다.

이번 경주 합의의 핵심인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는 외국 정부의 인위적인 환율 변경 여지를 줄여 원화 안정성을 높이게 될 전망이다. 또 '환율과 자본 이동의 과도한 변동성 완화' 합의는 흔히 '핫머니'라 불리는 단기자본 유출입을 억제하고 정부가 논의해온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과세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경상수지 목표제' 역시 일단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폭이 대체로 불균형을 가르는 기준점으로 논의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퍼센트' 범위 안에 들어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밖에도 IMF의 신흥국 지분율 상승도 국제경제 무대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하는 등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적지 않다. 이번 경주 성명서에 비즈니스 서밋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발 이슈 등 우리나라 주도의 사안들이 포함돼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효과를 미리 맛보고 있는 셈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서 행동계획 내놓아야"

실제로 경주 성명서 발표로 '달러 약세, 신흥국 통화 강세'로 환율 방향성이 뚜렷해지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자 글로벌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다시 신흥국 시장으로 몰려 경주 회의 이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2년 10개월 만에 1900대로 복귀했으며 10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1919.42를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 있다.

마지막 관문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내놓는 것이다. 정상들이 IMF 지분 조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경상수지 목표제'도 과도한 불균형의 기준이 될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합의를 이뤄야 한다. 또 '시장 결정적 환율제' 이행도 모두가 무시하면 환율전쟁이 재연될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는 G20 회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관건이다. 이에 따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최대한 많은 나라의 지지를 얻어내 의장국으로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서울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막판 조율과 설득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25일 경주회의 성과와 관련한 기자간담회에서 이솝 우화의 예를 들어 "알이 깨지기 전에 병아리를 세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겨우 큰 산을 하나 넘은 심정이다. 아직도 수심과 강폭을 예상 못할 큰 강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강을 건너지 않았으니 마지막까지 긴장해달라"고 당부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회의장 건물을 사수하라

우발적 상황 대비 인명구조·현장 대응능력 강화 위한 긴급구조 훈련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고층건물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우발적 상황에 대비한 신속한 인명구조와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행사장 대상 긴급구조 훈련이 실시됐다. 이번 훈련은 G20 정상회의를 대비한 소방방재청의 방재 수준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소방방재청은 G20 정상회의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고층건물에서의 우발적 상황을 설정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집중훈련을 실시했다.

동아DB



강남소방서

10월 2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파크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실시된 훈련 현장. '테러에 의한 고층건물 화재'라는 설정 아래 테러 초동조치, 고층건물 인명구조 및 응급의료활동 등의 훈련이 이뤄졌다.

10월 20~22일 사흘간에 걸쳐 실시된 소방방재청의 이번 훈련은 밀레니엄 힐튼호텔, 파크하얏트 서울호텔 등 서울 시내 각지의 고층건물에서 실시됐다. '테러에 의한 고층건물 화재'라는 설정 아래 테러 초동 조치, 고층건물 인명구조와 응급의료 활동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사태에 대비한 민·관·군의 상호 공조체계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

고층건물 화재는 이른바 '굴뚝효과'로 말미암아 화재가 순식간에 고층으로 확산돼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굴뚝효과는 건물 내부 온도와 외부 온도의 차이로 화재 시 연기나 불길이 건물 내부의 계단, 엘리베이터, 쓰레기 투입구 등 수직공간을 타고 급속히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굴뚝효과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건물 관계자의 신속한 초동 조치와 피난 유도, 진압대원의 초동 진압, 옥상을 통한 헬기 인명구조 등 여러 작전요소 간에 호흡이 맞아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소방안전기획팀 22명 구성 등 재난 안전대책에 최선

소방방재청은 이번 훈련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재난 대응 태세를 심층 분석하고, G20 정상회의 주요 행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태세를 재점검하고 보완해 서울 G20 정상회의가 끝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지난 1월부터 서울 G20 정상회의에 대비해 소방안전기획팀 22명을 구성하는 등 재난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G20 정상회의 주요 행사장 14개소에 대한 유형별 긴급대응 종합훈련은 물론이고, 행사 관련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 점검과 긴급구조 훈련, 관계자 소방안전 교육 등을 실시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위협요인에 대한 우발상황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행사준비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앞으로도 주요 행사장에 동원되는 소방대원에 대한 강도

높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완벽한 대응태세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행사 시설물 중 고층건물의 화기 취급 장소 등 취약장소에 소방안전요원이 배치되며, 건물 내부에는 화재진압대원과 구조요원이 상주한다.

소방차량을 행사장 인근에 전진 배치하는 등 신속한 초동대응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외국인이 많이 투숙하는 호텔에는 비상용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방송을 제작해 비치한다. 외국어 능통자를 119 상황실에 배치해 외국인 구급서비스의 편리성을 제공하거나, 응급병원을 지정하여 인명구조용 헬기 5대와 연계해 신속한 구급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기간 동안 행사장별 취약요소를 한 번 더 꼼꼼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한다면 서울 G20 정상회의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 고층 복합건축물 2972개소 합동 안전점검

또한 "관련 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행사장, 숙소 등이 모든 재난으로부터 완벽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대테러 대응책을 적극 강구해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소방 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 밝혔다.

재난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책이다. 부산 고층건물 화재 이후 긴급히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합동점검단'은 30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재난 취약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은 기본이다. 점검 대상은 특정 관리대상 시설 중 재난위험 시설로 분류되는 D·E급 다중이용 건축물 등 1백57개소, 5톤 이상 유·도선 70척과 6개 시도 지하철과 15개소의 지역축제 및 행사장이다.

이 중 다중이용 건축물 등 20개소, 유·도선 47척, 지하철 역사·터널 등 8개소(인천메트로, 코레일 공항철도), 지역축제 및 행사장 등은 한국건설품질연구원,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한국전기공사에서 선발된 7개 분야별 전문가 4개 반, 51명의 인원이 점검을 맡는다. 이 밖의 시설은 지자체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 점검한 뒤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에 보고한다.

박 청장은 "다각도의 안전점검을 통해 서울 G20 정상회의 전까지 전국의 고층 복합건축물 2천9백72개소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해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소방 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G

글 · 이윤진 기자

공항 항공위험물 집중 점검

"최상의 항공안전국으로 우리나라 위상 높일 것"

국토해양부는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둔 10월 18~29일 인천, 김포, 청주, 김해, 제주공항 등에서 항공기로 운송되는 항공위험물에 대해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종합 점검했다.

현행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기준은 위험물 포장용기, 표기·표찰의 적정성, 접수·보관, 탑재, 위험물 취급자의 교육 이수 여부, 사고 발생 대비 비상 대응절차 비치 등으로 이 기간 국제선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 평소보다 한층 강화된 보안점검이 실시됐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항공위험물에 의한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 9월 3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공항 인근에서 일어난 유나이티드 파설 서비스(UPS) 화물기 추락사고의 원인이 화물칸에 탑재한 리튬배터리의 화재로 추정된다는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발표에 따라 리튬배터리에 대한 점검도 특히 강화했다.

점검기간 이후에도 항공위험물 운송기준을 위반하는 사항이 발견되면 곧바로 항공위험물 감독관에 의해 위험물 탑재가 금지되며, 위반한 항공운송 사업자나 화주에 대해서는 과징금(3천만원 이하) 또는 과태료(5백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더 나아가 최상의 항공안전국으로서 우리나라 항공 안전의 위상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위험물 운송에 관한 규약은 유엔 산하 '위험물 운송 전문가 위원회(CoE TDG, Committee of Expert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 의해 정해지는데, 국제협약으로 강제성을 갖고 있다. 여기서 '항공위험물'로 분류한 총 3천4백여 가지의 화물을 항공 운송할 경우엔 국제기준에 따른 허가가 필요하다.

위험물 종류

분류(Class)	내용	종류
제1류	폭발성 물질	화약, 탄약, 불꽃놀이 재료 등
제2류	가스류	부탄, 프로판, 아세틸렌 등
제3류	인화성 액체	가솔린, 페인트, 알코올 등
제4류	가연성 고체	마그네슘, 나트륨, 인광성 물질 등
제5류	산화성 물질	암모니아질산비료, 염소산염 등
제6류	독성·전염성 물질	비소, 청산칼리, 농약 등
제7류	방사성 물질	토륨, 코발트, 라돈 등
제8류	부식성 물질	수산화물, 소듐, 수은 등
제9류	기타 유해성 물질	리튬이온배터리, 드라이아이스, 자성물질 등

국적항공사 위험물 항공운송 현황 (단위 : 톤)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6월	계
총화물	1,645,217	1,872,236	1,772,801	1,418,045	905,772	7,614,071
위험물	37,802	46,756	48,379	39,080	27,936	199,953
위험물 비율	2.29%	2.49%	2.73%	2.76%	3.08%	2.63%

"테러 꼼짝 마!"

현장 경호·경비 책임질 '경찰경호경비단' 본격 가동

주요 20개국 정상과 정치권 인사, 귀빈 등이 집결하는 서울 G20 정상회의.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행사인 만큼 회의장 주변과 각국 정상들의 이동 동선에서 테러나 과격 시위의 위험성도 높다. 이 때문에 현장의 경호와 경비를 전담하는 경찰은 세계경제 질서를 관리하는 최상의 회의체에 걸맞은 경호·경비 인력과 자원을 투입한다.

서울 G20 정상회의 회의장 주변과 행사장 현장의 경호·경비를 책임질 '경찰경호경비단(단장 신두호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 10월 초 출범했다. 경찰경호경비단 발대식은 10월 4일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및 외국 공관 대사,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남태령 경찰특공대에서 열렸다.

경찰경호경비단은 앞으로 G20 정상회의 행사장 주변에 배치돼 안전유지 활동을 펼치게 된다. 각종 집회와 시위에 대응하고, 주요 국가시설이나 대중 운집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10월 25일부터 11월 13일까지 행사장 반경 1.1 킬로미터에서 2.2킬로미터까지의 주변지역을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 인원 및 차량에 대해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또한 회의 개막 직전까지 단계적으로 배치 병력을 늘려 조그마한 사고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특수 방탄처리복·로봇 등 對테러 최첨단 장비 동원

경찰경호경비단에는 대테러 전문교육을 이수한 정예요원들로 구성된 경찰특공대와 기동본부, 외빈경호대가 포함돼 있다. 발대식에서도 이들 경호대가 실전을 가장한 다양한 시범 훈련을 선보였다.

회의 D-20일부터는 행사장 주변에 '경찰경호 종합상황



지난 8월 18일 G20 정상회의가 열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실시된 대테러 종합 모의훈련에서 경찰특공대 대원들이 건물 내부 테러범 소탕을 위해 헬기 레펠로 건물에 잠입하고 있다.

동아DB



동아DB

경찰특공대가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폭발물과 독가스 테러, 인질극 등 각종 상황에 대비한 대테러 진압훈련을 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서울 G20 정상회의 안전유지 활동을 펼치게 될 '경찰경호경비단' 발대식이 10월 4일 서울 남태령 경찰특공대에서 열렸다. 발대식엔 첨단 장비를 활용한 대테러 경비훈련 모습도 공개됐다.

실'이 가동되고 있다. 전국 경찰이 G20 정상회의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는 것. 경찰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틀간 총 5만명의 특공대, 기동대, 전·의경 인력을 경호·경비 업무에 투입한다.

경찰은 테러 사전진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장비도 동원한다. 경찰특공대의 테러 진압훈련에서는 40킬로그램짜리 특수 방탄처리복을 입은 경찰대원이 등장했다. 이어 등장한 것은 사람이 아닌 로봇.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올 법한 광경이지만 둘 다 이번 회의 경호·경비에 동원되는 첨단 장비다.

시위단체 폭력시위에 대비한 프로파일링 기법 도입

특수 방탄처리복은 캐나다에서 제작된 세계 최고의 방폭복(防爆服)으로, 폭발물 파편 등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췄다. 로봇도 폭발물 처리에서 큰 역할을 담당한다. 이 로봇은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된 폭발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미국에서 제작된 장치다. 원격 조정이 가능하며 현장 상황도 유·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다.

대원들이 폭발물을 처리하기 힘든 장소에서는 원격 로봇과 함께 일본제 탐색용 디지털 내시경이 동원된다. 국내 업체가 제작한 전파교란기도 발대식에서 선보였는데, 무선으로 작동하는 사제폭발물을 무력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 반경 30미터 내의 20~2천5백 메가헤르츠 대역의 주파수 차단이 가능하다.

극렬 시위자 진압을 위해 경찰이 자체 개발한 다목적 방패차도 눈길을 끌었다. 2.5톤 차량 앞부분에 가로 5미터, 세로 2.2미터 크기의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방패를 달고 시위대의 공격을 막으면서 최루액과 색소를 섞은 물포를 분사할 수 있다.

경찰은 특정 시위단체의 폭력시위 대비 차원에서 강력 연쇄범죄 범인 추정에 쓰이는 프로파일링 기법까지 경호·경비를 위해 도입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앞서 세 차례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특정 시위단체가 주도적으로 폭력시위를 이끌면서 주요 금융기관과 에너지업체 등의 기습을 사전 예고하는 수법으로 다른 폭력시위를 도발했던 사례에 주목하고, 프로파일링 기법(용의자나 사건의 성격, 행동 유형을 분석해 도주경로와 은신처, 혹은 향후 사건을 추정하는 수사 기법)으로 상세히 분석해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도 협조해 상습 외국인 과격 시위자의 명단을 확보해 입국을 막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위해요소 종합 대응을 위해 일본, 미국 경찰과도 행사 기간 중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테러 범죄 신고보상금' 지급제도를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각종 테러 위험이 있는 자를 신고한 경우엔 2백만원 이하, 테러살인범을 신고한 경우엔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G

글 · 유재영 기자



"지구촌 물 문제 해결 위해 강 살리기 모색"

낙동강 녹색수변벨트 조성 국제포럼… 4개 시도·시민 등 300명 참석

4대강살리기 녹색수변벨트 조성과 관련한 국제포럼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북 구미시에서 열렸다.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된 이 행사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신성장동력 사업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경북도청

10월 28일 낙동강 녹색수변벨트 조성 국제포럼이 열렸다. 첫날 포럼이 끝난 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은 '물 · 생명 · 녹색공동체를 위한 낙동강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젠 강 중심의 패러다임 시대입니다. 물 자원은 공짜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생명이나 녹색자원으로 인식을 전환해 강 유역 전체의 공동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10월 28, 29일 경북 구미시 남통동 금오산호텔에서 '낙동강 녹색수변벨트 조성을 위한 국제포럼'이 열렸다. 낙동강살리기에 힘쓰고 있는 경북도가 주최한 이 행사에는 국내외 물 전문가와 낙동강 유역의 경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경남도 등 4개 광역시도와 27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국토해양부·환경부 등 4개 부처 관계자, 시민 등 3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4대강살리기 녹색수변벨트 조성을 위해 국내외 인사들이 함께 논의하는 행사로 전국에서 처음 열렸다. '물·생명 더 큰 미래를 향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이틀간 물의 중요성, 4대강살리기 녹색수변벨트 조성에 도움이 되는 외국의 성공사례 발표 및 분과별 발표,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포럼 첫날 기조연설을 맡은 폴 라이터 국제물협회(IWA) 사무총장은 "4대강살리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구촌 물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교류하는 일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 그는 "전 세계적으로 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자, 전문가, 실무자, 정치가, 시민들이 협력해 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개발은 자연을 보호하며 산업·농업 발전 이끄는 사업"

"전 지구적으로 물이 부족한 상황이기에 10년 안에 물 생산과 관리방식에 효율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구 전체에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물 확보 경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을 확보하기 위해선 예전과는 다른 수자원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기조연설에 이어 다시 살아난 강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들

에 관한 해외 성공사례가 발표됐다. 스페인의 이나키 두케 '빌바오리아 2000' 대외홍보총괄이 '수변공간 재건을 위한 네르비온강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네르비온강의 사례를 소개했다.

스페인 네르비온강 주변에 자리한 인구 90만명의 빌바오는 한 해 1백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국제 관광도시다. 빌바오의 이런 성공전략에는 네르비온강의 수변생태 조성과 복구가 구심점이 됐다.

1983년 대홍수로 폐허가 된 이 지역에 1987년부터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실시해 산업폐기물로 가득했던 네르비온강을 정비했다. 17세기 성당은 공연장으로, 폐교된 학교는 창작촌으로 활용하는 등 도시 곳곳에 문화시설을 세웠다. 여기에 빌바오의 랜드마크로 떠오른 구겐하임미술관까지 들어서자 이 미술관 하나로 2천억원의 수입과 4천여 명의 고용효과가 유발됐다.

이나키 두케 '빌바오리아 2000' 대외홍보총괄은 "강 살리기 프로젝트로 도시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이후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국제적인 관광도시가 될 수 있었다"며 "한국의 4대강살리기 역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물론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물·생명·녹색공동체 위한 낙동강 선언문' 채택

미국 건축설계회사로 유명한 커닝엄 그룹의 니나안 부사장은 '녹색수변벨트를 활용한 투자 유치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강 개발은 자연을 보호하면서 산업과 농업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사업"이라며 "특히 강 주변을 관광과 휴식처로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강 주변 지역별로 특색 있는 명품 관광지를 만들어 국내외에 매력적인 투자요인을 발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성공사례 발표가 끝난 뒤엔 토론이 시작됐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국내외 교수 등은 4대강살리기 수변생태공간 조성을 위한 저마다의 생각을 나눴다.

토론 좌장을 맡은 영남대 이승근 정치행정대학원장은 "강 살리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이를 통해서 지역 및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광역시 배영길 행정부시장은 "이번 국제포럼으로 강 주변 지역 해외 성공사례 및 향후 개발방안 등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어 좋았다. 4대강살리기 초반 갈등은 더 좋은 것을 찾기 위한 갈등이라고 본다"며 4대강살리기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기대했다.

토론이 끝나자 첫날 포럼의 백미인 '물·생명·녹색공동체를 위한 낙동강 선언문'이 채택됐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기후변화와 물 문제를 개인이나 지역 문제가 아닌 인류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낙동강을 친환경 녹색공간이자 감성과 생태가 흐르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다음 날 이어진 포럼에서는 '강이 빗물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한무영 서울대 빗물연구센터장(IWA 빗물관리 분과위원장), '강물이 풍부하면 이끼 같은 미세조류를 활용해 바이오에너지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소개한 제임스 골든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생물학 교수와 조너선 트렌트 미 항공우주국(NASA) 책임연구원 등이 4개 분과별 세션을 진행했다.

포럼을 주최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 포럼은 국제적 차원의 녹색협력 틀을 구축하고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전 우리나라가 녹색성장 선진국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 자리를 통해 낙동강 유역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보완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G

글· 김민지 기자

4대강 수변생태공간 조성

지역별 나무심기로 '더 맑고 더 푸르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4대강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첫 단추인 지역별 나무심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4대강살리기 사업 완공 후 지역주민들이 접하게 될 4대강변을 '생태와 생명을 존중하는 수변생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둔치 안쪽과 제방을 비롯해 농경지, 도시 하천 주변에 숲이 만들어진다.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생태경관팀 김인 사무관은 "지난 10월 15일 낙동강 하굿둑 을숙도에서 강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4대강 수변생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나무심기를 본격 추진했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나무를 심기 시작한 곳은 금강유역이다. 2010 세계대백제전을 맞이해 지난 9월 세종 1, 2공구와 금강 6, 7공구에 시범적으로 나무심기를 실시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금강살리기사업팀 손남용 계장은 "현재 금강유역의 나무심기는 8퍼센트가량 진행됐다"며 "11월 중순 산림청 숲 가꾸기 주간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연이 살아 있는 '생명의 강' 희망을 그리다

낙동강 부산 화명지구 생태공원 그림 그리기 대회

지난 9월 4대강살리기 사업 중 처음으로 준공식을 치른 선도사업지구인 부산 화명지구 생태체육공원. 높고 파란 하늘과 선선한 바람으로 가을 날씨가 일품이던 지난 10월 23일 이곳에서는 하루 종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버려진 낙동강 둔치에서 아름다운 생태공원으로 되살아난 화명생태공원'이라는 주제로 3천여 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참가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자리한 화명지구는 낙동강 본류가 흐르는 곳이지만 예전부터 강 옆에 비닐하우스와 물웅덩이 등 각종 오염원이 널려 있어 수질오염이 심했다. 그러나 3년여 간 약 4백억원을 투입해 생물 서식공간, 생태학습장, 체육시설 등을 갖춤으로써 최근 4대강살리기 사업 중 최초로 조성된 생태공원으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됐다.

이번 그림 그리기 대회는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탄생한 첫 생태공원인 화명지구 생태체육공원의 성과를 함께 누리자는 취지에서 열리게 됐다. 특히 4대강살리기가 보(洑) 건설과 준설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소통하는 친환경 생태공간을 만드는 사업임을 알리는 계기를 만들고자 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행사에는 4대강살리기 관련 인사들도 대거 참가했다.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자연을 즐기면서 우리 하천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고 즐길 수 있는지 표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섭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오늘 행사는 4대강살리기의 첫 결실인 화명생태공원의 변화된 모습을 함께 즐기기 위해 마련했다"며 "이 행사를 통해 4대강살리기가 환경과 생태계를 되살려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사업으로 인식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 환경·생태계 살리는 사업으로 인식되길"

아이들은 공원을 돌아다니다 잔디밭이나 산책로 등 마음에 드는 곳에 자리를 잡고 그림을 그렸다. 특히 공원 주변 갈대밭과 강에서 노니는 오리들을 보면서 신기해했다. 아이들은 화명지구 생태공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즐기며 맑은 물이 흐르는 생명의 강, 낙동강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려냈다.

10월 23일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자리한 화명지구에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렸다. 이날 3천여 명이 참가해 화명지구 생태공원을 즐기며 멋진 그림들을 그려냈다.



낙동강유역환경청

부산 북구 용수초등학교에 다니는 조수빈 양은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아름다운 강을 바라보며 그림을 그리는 것은 처음"이라며 기뻐했다.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서 왔다는 학부모 조상숙 씨는 "비닐하우스와 쓰레기가 가득하던 곳이어서 접근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으로 바뀌어서 좋다"고 말했다.

한편 초·중·고등부로 나뉘어 열린 이 행사에 접수된 작품은 심사를 거쳐 11월 12일 수상작이 발표된다. 환경부 장관상(대상·3명), 부산광역시장상(금상·3명) 등 총 69명에게 상장과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G

글 · 김민지 기자



우정사업본부

지난 10월 12일 서울 명동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이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집배원 외투를 보여주고 있다.

우편물 배달 '친환경' 입고 씽씽~

재활용 페트병으로 우체국 집배원 옷 만들어



재활용 페트병에서 친환경 집배원 옷의 원료인 원사를 뽑아냈다. 집배원 옷 1벌에는 재활용 페트병 11개가 들어간다.

일일이 찾아다니며 소식을 전하는 우체국 집배원들이 친환경 지구사랑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물이나 음료수를 담는 페트(PET)병을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 옷을 집배원 복장으로 입게 된 것이다. 이번에 보급되는 집배원 옷은 6년 만에 디자인을 개선한 것으로 재활용 페트병을 잘게 부순 뒤 정제작업을 거쳐 뽑아낸 실을 원료로 원사를 만들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그린포스트 2020'을 발표한 후 우체국 건물과 우편차량 등에서 탄소배출을 줄이는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우체국 내에 고효율 냉난방 설비를 도입했고, 조명은 발광다이오드(LED) 전등으로 교체했다. 우편차량도 LPG, LNG 차로 바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퍼센트 감축할 계획이다.

이번에 만든 집배원 옷 1벌에는 재활용 페트병 11개가 소요된다. 올해 보급되는 상의와 점퍼만 3만5천여 벌로, 페트병 38만9천여 개가 사용됐다. 이같이 엄청난 양의 페트병 사용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2만2천 킬로그램을 감축할 수 있다. 이는 50년 된 나무 1천3백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과 맞먹는다.

남궁민 우정사업본부장은 "친환경 옷을 입은 전국 1만7천여 명의 집배원이 매일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녹색성장을 알리게 됐다"며 "앞으로 보급하는 다른 옷도 친환경 소재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 · 김민지 기자

‘나눔 온기’로 훈훈한 사회 만든다

모바일 사회안전망 구축 · 의료 지원사업 등 나눔문화에 앞장

기업들이 솔선수범하는 나눔의 온기가 사회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모바일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실종아동, 치매노인을 찾아주거나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의료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나눔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동아DB

SK텔레콤 대학생 자원봉사단 단원들이 ‘어르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휴대전화 활용교육’에 참가한 노인들에게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SK telecom

모바일 통해 ‘실종자를 가족 품으로’

“이동통신사가 잃어버린 동생을 되찾아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동생을 실종 5일 만에 되찾은 김철수(가명 · 30) 씨는 SK텔레콤에 전화를 걸어 연방 “감사하다”는 말을 거듭했다. 김 씨의 동생이 실종된 것은 지난 2월 12일. 가족이 닷새 동안 온 동네를 다니며 수소문했지만 동생의 행적은 묘연했다. 2월 17일, 김 씨 가족의 신고를 받은 실종아동 전문기관이 SK텔레콤에 협조를 요청했다.

가족은 그로부터 불과 2시간여 만에 동생을 찾을 수 있었다. SK텔레콤이 실종 예상지역인 서울 관악구와 인근 구(區) 내 자사 가입자 20만명에게 동시 발송한 실종자 정보를 본 한 시민이 “병원에서 비슷하게 생긴 환자가 입원한 것을 봤다”며 경찰에 신고해온 것.

휴대전화 보급률이 1백 퍼센트를 넘긴 가운데 정보통신기업인 SK텔레콤은 휴대전화의 강점인 빠른 전파력과 손쉬운 접근성을 자사의 기술력과 결합해 ‘모바일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모바일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의 대표 사례는 김 씨와 같은 ‘모바일 미아 · 장애인 · 치매노인 찾기 서비스’. SK텔레콤이 2004년 5월 처음 선보인 이 서비스는 올해 8월까지 22명의 실종자를 가족 품에 돌려보내는 데 기여했다. 이는 200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소개돼 선진국들의 호평을 받았다.

휴대전화 전파력 · 접근성 활용한 ‘모바일 사회안전망’ 구축

2007년 시작한 ‘청소년 모바일 상담 서비스’도 SK텔레콤의 주요 사회안전망 서비스 가운데 하나다. 청소년들이 문자

메시지나 채팅 형태로 신변 노출 부담 없이 고민을 상담할 수 있다. 전국 1백45개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해 전문 상담가와 청소년들을 연결해주기도 한다. 지난 한 해에만 12만명이 상담을 받았고, 이 중 3백명이 심층 상담으로 이어졌다.

SK텔레콤은 긴급 수혈이 필요한 희귀 혈액형 환자가 발생했을 때 등록된 회원들에게 헌혈 참여를 권유하는 '모바일 헌혈 서비스', 갑작스런 태풍이나 홍수가 예상되는 지역의 가입자들에게 보내주는 '긴급재난 문자정보 서비스', '해외안전 서비스' 등도 펼치고 있다. 글 · 장상진(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stx | 계열사 임직원 모두 봉사 열기로 후끈

지난 9월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울영아일시보호소를 찾은 이종철 STX그룹 부회장은 '일일 엄마'가 됐다. 분홍색 가운을 입은 이 부회장은 능숙하게 영아를 어르고 분유를 주며 우는 아이를 달랬다. 이처럼 STX그룹 임직원 4천5백여 명은 9월 6일부터 2주 동안 '자원봉사 대축제'를 펼쳤다.

서울, 경기 및 경남 지역의 결식아동, 저소득 가정, 홀몸노인들을 찾아가 생필품 전달 등 필요한 도움을 주고 농촌지역 일손 돕기, 헌혈 봉사 등 1백50여 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부회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임직원들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며 "앞으로 봉사활동 범위를 넓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STX는 그룹의 사회공헌 모토인 '꿈과 미래가 있는 세상 만들기'를 위해 전 계열사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예컨대 주식회사STX는 전 부서가 주중 및 주말을 이용해 릴레이식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연중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관, 서울영아일시보호소, 용산구립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단체와 연계해 각 부서의 신청을 통해 원하는 시기와 활동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여율을 높였다. STX는 '나눔경영 철학'에 기초해 2006년 STX 장학재단과 STX 복지재단을 출범시켜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농촌지역 일손 돕기·헌혈 등 150여 개 프로그램 참여

STX 장학재단은 총출연액이 2백50억원에 이르는 국내 대표 장학재단으로, 현재까지 1백57명의 국내 장학생과 46명의 해외유학 장학생을 배출하며 국내외 장학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STX는 다문화 어린이도서관도 운영 중이다. 2008년 9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다문화 어린이도서관 '모두' 1호점을 열었으며 이어 경남 창원, 부산, 구미 등지에 네 곳의 다문화 어린이도서관을 차례로 개관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글 · 김승범(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STX 제공

이종철 STX그룹 부회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9월 열린 STX 자원봉사 축제에 참여해 서울영아일시보호소에서 영아 돌보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홈플러스



홈플러스는 성장과 기여의 가치가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기업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5월 홈플러스가 후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어 달리는 '한마음마라톤' 대회.

Home plus | 'e파란재단'으로 4대 사회적 가치 실현

1999년 2개 점포로 시작해 10년 만에 연매출 10조원을 돌파한 홈플러스는 유통업의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사회공헌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10월 사회공헌재단인 '홈플러스 e파란재단'을 세웠다. 핵심 모토는 환경 · 이웃 · 지역 · 가족사랑이라는 4대 사회적 가치 실현이다.

우선 환경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2020년까지 2006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50퍼센트 절감을 목표로 전사적인 친환경 경영을 펼친다.

중소도시 문화복지 증진 위해 평생교육 아카데미 운영

2008년 10월에는 유통업계 최초로 경기 부천시 여월점을 '그린스토어' 1호점으로 열었다. 이곳은 기존 점포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0퍼센트, 에너지 사용량을 40퍼센트 줄였다. 현재 그린스토어는 8개다. '홈플러스 탄소발자국 관리 시스템(Homeplus Direct Carbon Footprint Tool)'을 통해 2006년부터 홈플러스에서 발생하는 모든 탄소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웃사랑 실천 차원에서 회사 물품을 기증해 전국 '아름다운 가게'에서 판매한 후, 수익금을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하는 '홈플러스 데이'를 연다. 2005년 5만 점(7억원)에서 시작한 이 행사는 지난해 총 30만여 점, 25억원 규모로 커졌다.

홈플러스는 지역별 장애인 대상 1억원 상당의 쌀 기증, 홈플러스 갤러리 구족화가 전시회 개최, 장애아동 갯벌체험행사 실시, 장애 연주자 이희아 피아노 연주회 개최 등도 진행한다.

대도시는 물론 지방 중소도시의 문화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평생교육 아카데미도 운영한다. 현재 전국 1백 개 홈플러스 평생교육 아카데미에서 연간 1백만명이 넘는 수강생을 배출하고 있다. 평생교육 아카데미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전문가들만 5천5백명에 달한다.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선진국의 가족친화 보육 시스템을 연구하고 이를 한국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는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글 · 김덕한(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빙그레 | 아이들 얼굴에 '웃음꽃' 선물

빙그레는 사회 여러 분야 중에서도 어린이와 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회공헌활동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이 누구보다 건강하게 웃으며 꿈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전 세계 빈곤아동을 돕는 국제기구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과 함께 아동 안면 성형 지원과 더불어 제3세계 심장병 어린이들의 수술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의료 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면 성형·심장병 수술 지원 및 사랑의 동전 모으기 진행

더 나아가 빙그레 직원 개개인이 참여하는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아이스크림 '투게더' 광고에 '세이브 더 칠드런'을 알리는 문구를 넣어 어린이들의 권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기도 했다.

어린이의 밝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어린이 그림 잔치를 25년째 꾸준히 개최해오고 있는 것도 빙그레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다.

빙그레는 온 가족이 함께 사회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비타트 운동에도 적극적이다. 특히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직접 땀 흘리며 봉사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매년 임직원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고통 받는 이들의 보금자리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임직원 기부제도인 'e-천사기부 캠페인'을 통해 무의탁 노인에게 점심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매달 임직원의 월급 중 2천4원씩 적립해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취지로 시작된 이 캠페인은 임직원과 회사가 한마음으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월 모인 적립금만큼 회사가 추가로 기부금을 부담하는 이른바 '매칭 그랜트' 방식을 도입했다. 우선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지역을 대상으로 구청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무의탁 노인 10명에게 빙그레의 배달식 영양 도시락 '예가든'을 1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기현 홍보실장은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요플레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핑크리본 캠페인'에도 3년째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홍원상(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빙그레



빙그레는 어린이와 가정을 대상으로 사회공헌활동에 힘쓴다.
25년째 개최하고 있는 '어린이 그림 잔치'.

“지적 장애인이지만 감수성은 풍부해요”

‘나자로의 집’ 원생들, ‘문화바우처’ 지원으로 생애 첫 연극 관람 나들이

서울 신림동에 자리한 장애인 재활시설 ‘나자로의 집’ 식구들이 명동으로 특별한 나들이를 했다.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 중인 연극 〈시라노 드 베르쥬락〉을 보기 위한 것. 생애 첫 연극 관람으로 한껏 들뜬 이들을 만났다.



조영철 기자

“연극 무대에서 전해지는 인간적 교감과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었다”는 김용주 시설장의 소망을 아는 듯 ‘나자로의 집’ 원생들은 공연 내내 진지한 태도로 관람에 임했다.

“오는 길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빨리 연극을 보고 싶어요.”

“극장도 연극도 처음이에요. 엄마랑 같이 왔는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서울 명동예술극장 로비에서 만난 조희(34) 씨와 김은혜(23) 씨는 연극 관람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다.

기분이 고조된 것은 이들만이 아니다. “아이 손을 잡고 연극 구경을 할 날이 오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는 김나경(가명 · 52) 씨, “‘나자로의 집’이 문을 연 이래 최초의 연극 관람”이라는 김용주(41) 시설장…. 원생과 부모, 자원봉사자, 교사들 모두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공연 시각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날의 연극은 〈시라노 드 베르쥬락〉. 1992년 같은 작품으로 동아연극상 연출상을 받은 김철리의 연출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시라노로 분한 개성파 배우 안석환과 뮤지컬계의 히로인 김선경이 연기하는 록산느의 호연이 기대되는 작품이다.

“자원봉사자 · 부모 동반해야 야외활동 가능”

“TV에 나오는 탤런트가 나온대요. 빨리 보고 싶어요.” 상기된 얼굴의 이미진(19) 양은 연극 관람에 대한 기대감으로 잠을 못 이룰 정도였다고 한다.

일반인이라면 그리 특별할 것 없는 연극 관람이지만 이들에

겐 또다시 주어질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각별한 기회다. 그것은 이들이 중증 지적장애인이라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나자로의 집' 원생들은 대부분 중증 지적장애인들로, 혼자서 외출하기가 어려워 보호자 동반이 필수다. 보호자를 동반한다고 해도 계단, 승강기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 보호자와 자원봉사자가 일대일로 보살펴줘야 가능하다. DM 발송사업과 문구류 포장, 생활용품 부품 조립 등의 자활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 바깥활동이 익숙함에도 외출은 이렇듯 큰맘 먹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따라서 야외활동은 봄가을의 소풍 정도로 제한돼왔다. 김용주 시설장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자원봉사자들과 부모님이 동반해주셔야만 야외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반인의 선입견과 시선을 견디기 어려운 것도 외출을 꺼리는 중요한 이유다. 김 시설장은 "공연장이나 극장, 미술관 등 일반인과 함께 어울려야 하는 공간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현실을 알고 있는 이상 주위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 어쩔 수 없이 피해오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문화바우처 사업 일환 '나자로의 집' 연극 관람 지원

하지만 이날만은 달랐다. 원생들은 '초대받은 손님'의 자격으로 당당히 극장에 들어올 수 있었다.

'나자로의 집' 식구들이 공연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소외계층도 적극적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펼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바우처 사업 덕분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영화, 연극, 뮤지컬 등 각종 공연과 전시 관람 및 도서구입 비용으로 1년에 5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사업과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들을 위한 기획공연 등으로 소외계층이 문화를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하지 못한 사랑'이라는 연극 주제를 '나자로의 집' 원생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김 시설장은 "전혀 문제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지적장애인들도 문화를 즐기고 감정을 느끼는 정도는 일반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보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순수해 우리들이 놀랄 때도 적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권영태(48) 주무관은 "'나자로의 집' 원생들의 연극 관람은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나눔 활동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엔 미술관이나 콘서트장에 가고 싶어요. 샤이니, 소녀시대 같은 아이돌 가수들을 직접 보고 싶어요."

이날 만족스럽게 연극 관람을 마친 김은혜 씨의 소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G

글 · 이윤진 기자

나자로의 집 ☎ 02-887-3629 www.nazaro.or.kr

연극 〈시라노 드 베르쥬락〉

심금을 울리는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

1897년 12월 프랑스 파리의 포르트 생 마르탱 극장에서 초연된 연극 〈시라노 드 베르쥬락〉은 관객들에게 지고지순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전하며 각종 연극무대와 '시라노 연애조작단' 등의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수차례 재해석된 고전 레퍼토리다.

탁월한 검객이면서 희대의 시인이자 음악가로도 명망이 높은 시라노(안석환 분)에게 부족한 것은 단 하나, 그의 외모다.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크고 못생긴 코 때문에 사랑하는 록산느(김선경 분) 앞에서 다정한 오빠로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미남청년 크리스티앙을 대신해 록산느에게 연애편지를 쓰는 역할을 맡는다. 시라노가 쓴 연애편지를 읽으며 록산느는 크리스티앙에 대한 사랑을 키워간다.

크리스티앙은 시라노의 마음을 깨닫고 록산느에게 진실을 밝힐 것을 종용하지만 시라노가 고백하기 직전에 크리스티앙은 전쟁터에서 숨을 거둔다. 친구의 죽음 앞에 시라노는 진실을 마음에 묻고, 상심한 록산느는 수녀원으로 들어가 세상과 인연을 끊는다. 그 후 14년간 시라노는 매주 록산느를 찾아 위로를 하는데, 록산느는 시라노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자신에게 보낸 편지의 주인공이 시라노임을 알아차린다.

유머러스한 극 초반의 분위기는 점차 등장인물들의 비극적 결말이 다가옴에 따라 엄숙함을 더해간다. 희극과 비극,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지 이야기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시라노만 세 번째"라는 김철리의 연출력 덕분이고, 등장인물의 대사 하나 동작 하나하나마다 관객의 감정이입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안석환을 비롯한 배우들의 호연에 있다. 10월 22일부터 11월 14일까지.

명동예술극장 ☎ 1644-2003 www.mdtheater.or.kr



“한글로 화합의 메시지 그립니다”

G20 정상회의 성공 개최 기원 특별전 연 서예화가 한한국 씨

한한국 씨는 세계 최초로 ‘서예 회화’라는 장르를 개척한 사람이다. 평화운동가이자 유엔 한글평화지도를 통해 글로벌 작가로 인정받게 된 그는 최근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며 총 27개국 지도를 한글로 그린 특별전시회를 열어 화제를 모았다.



한한국 씨는 “우리나라를 알리고 통일을 기원하며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기 위해 서예로 글씨를 써 지도를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김포시에 자리한 작업실 겸 자택에서 만난 서예화가 한한국(43) 씨는 대작 한 점을 펼쳐보였다. 가로 세로 1센티미터 크기의 작은 글자들로 완성한 작품의 이름은 ‘희망 대한민국’. 가로 4.5미터, 세로 6.5미터의 특수 종이 위에 약 6만 개의 글자로 한반도 지도를 그려냈다.

글자로 그림을, 그것도 정교한 지도를 그린다고 하면 머릿속에 작품의 형상이 쉽게 그려지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 작품을 그리고 칠하는 대신 글씨를 쓰는 서예 작업만으로 지도의 형체를 잡고 채색한 듯 공간을 메워 완성한 것이다. 마치 찍어낸 듯한 글자 하나하나를 보면 ‘글씨를 썼다’, ‘지도를 그렸다’는 표현보다는 ‘기운을 새겼다’는 표현이 더 적합할 듯싶다.

구상에만 2년, 완성하는 데 5년이나 걸렸다. 한반도의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남북한의 강원도는 태극을 상징하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채색했는데 이 작업 역시 붓이 아닌 손가락에 색을 묻혀 종이에 찍어내는 ‘수인(手印)’으로 완성했다. 그가 이 작품을 꺼내 보여준 이유는 지금까지 16년 동안 모든 작품에 담고자 했던 메시지가 그 작품 하나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한글 선택한 것은 가장 한국적인 정신 담은 글자이기 때문

그는 한문학을 전공했다. 하지만 한글을 재료로 선택한 것은 한글이 가장 한국적인 정신을 담은 글자라고 생각해서다. 초성, 중성, 종성의 조화는 화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평화통일의 염원을 담기에도 제격이다.

‘희망 대한민국’이라는 작품 안에 든 3만 글자는 우리나라 최초의 제헌헌법,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글, 그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시로 이뤄져 있다. 게다가 독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글씨로 완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을 알리고, 분단국가의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것. 이 세 가지가 작업을 하는 이유예요.

작품 한 점은 그냥 작품일지 몰라도 그 작업을 하면서 새긴 희망의 기운은 작품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전달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의 작품은 한 번만 보면 작업시간이 오래 걸리리라는 걸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아무리 짧게 잡아도 한 점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6개월 이상이다. 그런 그가 G20 국가의 지도를 모두 그려 특별전까지 열게 됐다니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사실 그가 처음 각국의 지도 작업을 시작한 것은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외국인들도 많은데 한반도 지도를 보여주는 것보다 그들의 나라를 한글로 그려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작품을 감상하면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보고, 자연스럽게 ‘한국이 어떤 나라인데 그 나라 말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도를 그렸을까’ 하는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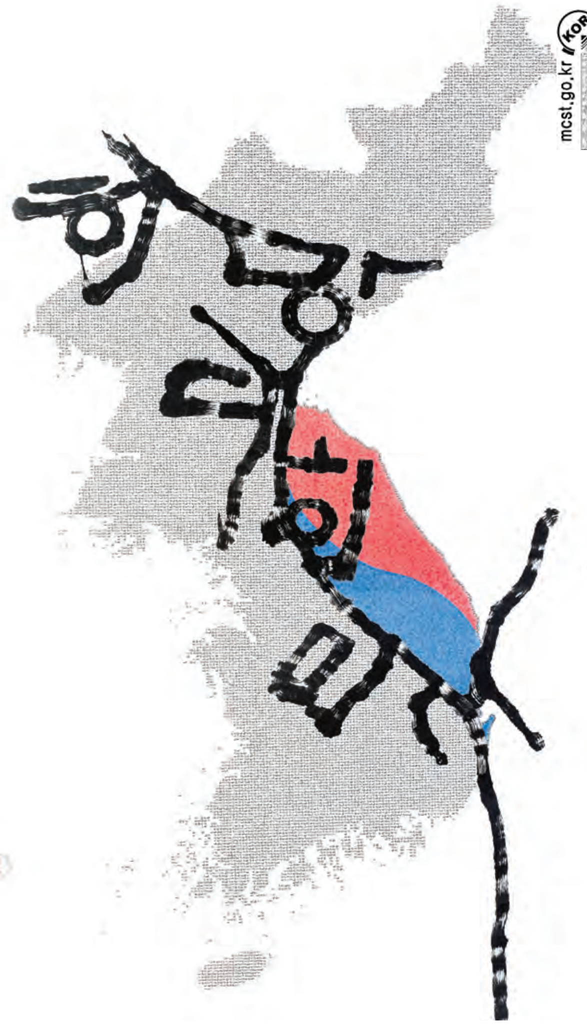
내년에는 각국 지도 한복에 새겨 패션쇼 열 예정

그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국가를 하나씩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한 국가가 완성되면 다음에는 문득 떠오르는, 때로는 꿈에 나온 나라들을 그렸다. 평생 그려 세계지도를 완성한다는 게 목표였다. 그러다 지난해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우리나라가 선정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혹시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쳤다. 그때까지 그린 나라는 총 26개국. 퍼즐 맞추듯 G20 참가국들을 완성된 작품과 하나하나 맞춰보니 19개가 맞아떨어졌다.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는 행사인 만큼 지금까지의 작품을 통해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희망하는 전시회를 열고 싶었다. 남은 하나는 바로 유럽연합. 지난해 11월 다시 붓을 잡아 부지런히 유럽연합 지도를 그렸고, 드디어 올해 5월 모든 G20 정상회의 참가국의 지도를 완성했다. 각 나라 지도에 쓰인 내용은 대부분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설명이거나 평화를 기원하는 글들이다.

16년간의 작업은 육체적으로 고됐다. 무릎을 꿇고 앉아 글씨를 쓰다 보면 무릎에서 피가 나는 일은 다반사였다. 엎드려서 작업을 하다 보니 피가 머리로 쏠려 20~30분 만에 손이 떨려 붓을 잡기도 힘들었다. 허리를 펴고 다시 붓을 잡기를 반복하며 하루에 12~16시간씩 작업에 몰두했다.

몸도 몸이지만 경제적으로 힘이 부치던 시절도 있었다. 일반 한지가 아닌 커다란 특수 종이를 쓰다 보니 종이 한 장 값만도 1천만원. 그러던 중 5년 전 일본의 한 고위관계자가 솔깃한 제안을 했다. 작업에 들어가는 비용, 작업실, 심지어 작



우리나라 최초 제헌헌법,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글 등 3만 글자로 이뤄진 서예 지도 작품 ‘희망 대한민국’. 구상에서 완성까지 7년이 걸렸다.

품을 걸 전시관까지 제공할 테니 일본에서 작업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 한글로 계속 작업해도 좋다고 했다. 단, 일본인으로 귀화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당시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울 때라 마음이 끌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한글로 한반도 지도를 그려내는 작업을 계속할 수 있다 한들 그곳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써야 하는 상황이 생길지 모르잖습니까.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만은 하지 말자고 마음을 다잡았지요.”

전 세계에 한글을 알리고 화합의 메시지를 새기겠다는 그의 작업은 계속된다. 2012년 핵 확산 방지 50개국 정상회의를 맞아 초대형 지도 작품을 계획 중이다. 내년에는 지금까지 그린 각국 지도를 한복에 새겨 각국 대사들을 초청해 패션쇼를 열려고 한다.

이런 그에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형 작품들을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완성한 지 10년 넘은 작품들은 매번 작품을 접었다 폈다 하며 훼손되기도 하지요. 이런 작품들을 반듯하게 전시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G

글 · 정고은 객원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젊고 날씬한 몸매는 모유 수유 덕분"

모유 수유 홍보대사 신한미 판사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니까 나도 살이 금방 빠지고 피부도 좋아지던걸요." 모유 수유 홍보대사로 위촉된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신한미(39) 판사의 이야기다.

그는 지난 7월 소비자시민모임 등 9개 단체가 참여한 '한국모유수유넷'이 2010 세계모유수유주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홍보대사가 됐다. 신 판사는 법조계에서 이미 '다섯 아이 엄마'로 유명하다.

다섯 아이에게 모두 젖을 물려 키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특별한 모성애는 더욱 빛나고 있다. 신 판사는 아이 다섯을 낳은 아줌마라고 보기엔 무척 젊고 날씬하다. 그는 "다 모유 수유 덕분"이라고 했다. 신 판사는 지난해 1월에 얻은 막내아들 윤모가 생후 17개월이던 올해 6월까지 젖을 물렸다.

막 뛰어다닐 정도로 큰 아이가 엄마 품에 매달려 있자 주변에선 징그럽다고 손사래도 쳤다. 하지만 모유 수유 덕인지 임신 후 12킬로그램이나 늘었던 몸무게가 5개월 만에 다시 빠졌다고. 지금은 임신 전보다도 날씬하다. 다섯 아이에게 모두 모유를 그렇게 오랫동안 수유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직장이나 공공건물에 모유수유실이 생긴 것도 몇 년 되지

지난 7월 29일 모유 수유 홍보대사로 임명된 서울가정법원 신한미 판사. 축하 사절로 남편 강인구 변호사와 네 아이가 행사장을 찾았다.



않은 일이라 첫째나 둘째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때 정도만 젖을 물릴 수 있었다.

처음엔 젖 물리는 법에도 익숙하지 않아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하지만 넷째와 다섯째를 키울 때쯤엔 누워서도 모유를 먹이는 등 '고수'가 됐다고. 신 판사는 "모유 수유는 유방암도 예방하고 아이에겐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준다고 들었다"며 "실제로 아이들이 나를 많이 따르고 말썽 없이 잘 자라주고 있다"고 했다.

"유방암 예방과 아이의 정서적 안정감 높여"

아이를 많이 낳은 건 신 판사와 남편인 강인구(42) 변호사 모두의 뜻이었다. 4대 독자인 강 변호사와 남동생만 하나 있는 신 판사 둘 다 형제자매가 많은 가족이 부러웠다. 일단 2남 2녀를 갖기로 했는데, 하늘이 정해준 것처럼 순서대로 아들, 딸, 아들, 딸을 낳았다.

"막내는 얼떨결에 낳은 '얼떨리우스' 인데, 사람들은 넷째까지 낳고도 피임을 안 했으니 '미필적 고의(어떤 결과를 예상하고도 방치함)'라고 해요. 하하."

'그저 아이들이 좋아서' 12년간 배짱 좋게 3남2녀를 낳았지만 지방 근무와 야근을 피할 수 없는 판사가 아이 다섯을 키우기는 쉽지 않다. 그도 "시어머니와 남편, 어린이집, 도우미 아주머니 같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힘들다"고 했다.

하지만 신 판사는 누구도 아이들의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다고 한다. 10년 전쯤 전주에서 근무하던 그는 시어머니에게 맡겼던 첫째와 둘째를 전주에 데리고 와서 홀로 키웠다. 주말마다 엄마와 떨어지며 우는 모습이 보기 힘겨웠기 때문이다.

어린이집 종일반에 맡겨두고, 야근이 불가피할 땐 어린이집 원장에게 신세를 져야 했지만, 인심 좋은 원장 등 이웃들 덕분에 아이들을 홀로 옆에 두고 키울 수 있었다고 한다. 요즘은 시어머니에게 최대한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한다. 비교적 출퇴근 시간이 자유로운 남편이 넷째(3)와 다섯째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퇴근 무렵엔 시간이 되는 쪽이 아이들을 데려온다.

'다섯 아이 엄마'로 유명한 신한미 판사. 넷째와 다섯째를 키울 땐 모유 먹이기의 '고수'가 됐다는 그는 "모유 수유는 유방암도 예방하고 아이에겐 정서적 안정감을 높여준다고 들었다. 실제로 아이들이 나를 많이 따르고 말썽 없이 잘 자라주고 있다"고 말한다.

필요하면 구청에서 저렴하게 지원하는 돌보미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다. 신 판사가 주말에 근무하면 남편이 아이들과 찜질방에도 가고, 공원에도 간다. 아이들은 함께 있기만 해도 서로 돌보며 즐겁게 놀기 때문에 이젠 신 판사가 크게 걱정할 일은 많지 않다고 한다. 다만 아이들이 커갈수록 사교육비는 걱정이다.

"그래도 영어학원은 보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요새 방과후 교실 수업도 알찬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또 넷째 이상은 '사회 기여자'라고 해서 특수고등학교 지원 때 혜택도 준대요. 넷째, 다섯째는 입시 걱정 안 하려고요. 호호."

신 판사는 현재 소년부 재판을 맡고 있다. 다섯 아이를 키우는 경험이 재판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절도, 폭행 등 일탈행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노력한다.

다섯 아이 키우는 경험, 재판에 큰 도움

신 판사가 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너를 믿는다"거나 "네 마음을 이해한다"는 등 아이들의 마음을 감싸주는 말들이다. 부모가 함께 왔을 때에는 그들에게 "저도 아이 다섯을 키우다 보니 느끼는데, 아이들은 어른들이 어떻게 가르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라고 말한다. 아이들은 변화의 가능성을 믿고 바른 길로 이끌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이혼소송을 주로 맡는 재판부에 있었을 땐 되도록이면 아이들 처지에서 판결하려 노력했다. 부인과 이혼소송을 벌인 한 남성이 아이들이 엄마를 보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자 신 판사는 "아무리 잘못한 엄마라도 아이들에겐 엄마라는 존재가 꼭 필요하다"며 본인의 육아 경험을 설명해 남자를 설득하기도 했다. 일도 육아도 완벽하게 소화해내고 있는 '슈퍼우먼' 신 판사지만, 그에게도 최근 고민스러운 일이 있었다. 열한 살인 첫째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었는지 엄마에게 조금씩 투정을 부리는 것이다.

엄마의 사랑을 동생들과 나누는 일을 너그럽게 받아들였던 첫째지만, 최근 들어 그걸 힘들어하고 있다고 느낀 신 판사는 아이디어를 냈다. 첫째 아들에게 단독 데이트를 신청한 것이다. 방과 후 동생들 없이 엄마와 맛있는 저녁을 먹고 대화를 나눈 아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밝아졌다고 한다.



조영철 기자

소년부 재판을 맡고 있는 신한미 판사에게 다섯 자녀의 양육 경험은 재판에 큰 밑천이 되고 있다.

신 판사는 "아이들은 정말 부모 하기 나름인 것 같다"며 아이들에 대한 사랑을 강조했다. "한번 어긋난 아이들이라도 어른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주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덜 여문 열매라 변화할 수 있는 잠재성이 무한하거든요." G

글 · 류정(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나눔·사랑 있는 배움터에서 꿈 키워요

동네 주민·학생 나눔으로 운영되는 '꼴찌없는 글방'

도시 빈민들의 삶의 터전인 경기 성남시 구시가지의 한 달동네에 특이한 공부방이 있다. '꼴찌없는 글방'이다. 참가자들과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힘을 보태 운영하는 이곳은 나눔의 정신이 살아 있는 사랑의 배움터다.

'꼴찌없는 글방'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 '꼴찌에게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사회'를 꿈꾸며 2008년 5월 경기 성남시 모란시장 인근에서 작은 야학 동아리로 시작했다. 이후 1년여의 기간을 통해 학생 수가 1백여 명으로 늘어나고 경기도청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돼 정부보조금도 받을 정도로 성장했다.

"기존 공부방과는 다른 차별화된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방식이 수업료나 간식비, 교재비를 받지 않는 무료 공부방이라는 점과 참가자들의 기부로 운영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염오봉(46·안양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대표의 설명이다.

물론 '무료'라는 원칙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정부보조금과 후원자들의 온정에 기대면 어떻게든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렇게 되면 글방 운영이 의존적으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다. 그렇다고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학생들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무료 공부방'이라는 취지에서 멀어지게 된다.



정부보조금이나 후원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자립한 공부방을 만들기 위해 염오봉 대표는 '중고책 판매'라는 수익사업을 시작했다.

금액이 적더라도 그것에 부담을 느껴 찾아오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기에 '무료'라는 원칙은 어떻게든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중고책 판매'를 통한 글방의 재정 자립화였다.

중고책 판매는 '책의 재활용, 지식의 리사이클링'이라는 슬로건 아래 이뤄진다. 판매하는 책의 대부분은 기증받은 것으로, 비록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중고책의 판매 수익금으로 글방이 운영된다.

기증받은 책은 학생들의 학습 교재로 쓰이거나 도서관 도서처럼 이용되기도 하니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는 셈이다. 글방 운영방식에 공감한 농협에서 성남 하나로마트에 공간을 내줘 마트 안에서 중고책을 판매했다. 열흘이라는 한정된 기간이었지만 수익도 올릴 수 있었고 일반인들에게 글방도 알릴 수 있었다. 염 대표는 "글방 활동과 책의 리사이클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기증받은 중고책 판매 수익금으로 글방 운영

'꼴찌없는 글방'의 후원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를 한다. 일단 판매를 위한 중고책은 전부 기증받은 것들이다. 기증받은 책이 많아지면서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지자 후원자로부터 본인 소유 창고에 중고책을 보관할 수 있도록 공간도 기부받았다.

성남시에서 중고책방을 운영하는 후원자는 중고책 판매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주고 자신의 책방에 있는 판매용 중고책을 기증했다. 인근 슈퍼마켓 주인은 글방에만 특별 할인을 적용해주고 빵집 주인은 아이들 간식으로 빵을 기증하는 등 동네 주민들도 훈훈한 인심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나눔의 마음이 있다면 물질적 기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글방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바로 재능기부를 통해서다. 재능기부는 말 그대로 물질이 아닌 자신의 능력이나 기술을 소외계층을 위해 쓰는 것을 의미한다.

염 대표는 공무원 경험을 살려 '꼴찌없는 글방'의 운영에 힘쓰고 있다.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이정애 원장은 교육 프로그램 기획과 수학 강의를 맡고 있으며, 법무법인 새길의 이현용 변호사는 글방 운영에 관한 법적 자문 역할은 물론 현장학습

가이드도 자청해 아이들에게 인기 강사로 통한다. 세무법인 새길에서는 글방의 세무관리를 해주고 있다.

일주일에 2시간씩 시간을 내어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 휴일을 이용해 글방을 청소하러 오는 학부모들, 휴일이나 방학이 되면 봉사활동을 자청하는 아이들…. 글방을 찾는 모든 식구들이 저마다 재능을 기부하면서 어느새 나눔은 습관이 됐다.

배움의 때를 놓친 성인들이 글방을 찾아 못다 한 공부의 한을 풀고 재출발의 기회를 모색하는 경우도 있다.

올해 2월 KBS 1TV 〈현장르포 동행〉에 사연이 소개된 박남수(55) 씨도 그중 한 명이다. 그는 2005년의 화물차 화재폭발 사고로 당시 동승했던 아들 형중(10·초교 3년) 군과 함께 얼굴과 손을 비롯한 전신에 큰 화상을 입었다. 사고로 조막손이 된 그는 폐지 수집으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던 중 '꼴찌없는 글방'을 만나면서 부자가 나란히 '공부방 동창'이 됐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 다닌 것이 학력의 전부인 박 씨는 '꼴찌없는 글방'을 만나 평생의 숙원이던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

한글 공부부터 시작한 그는 선생님들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해온 꿈을 이야기했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싶다는 꿈이다.

염 대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싶다는 얘기에 모두 말렸지만 뜻을 꺾을 수 없었다. 그런데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자 생각지도 못했던 집중력과 이해력을 보여줬다. 이대로 계속 공부한다면 자격증 취득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와 함께 글방을 다니는 아버지는 또 있다. 경기 광주시의 한 공장에서 전기기술자로 일하는 김영철(가명·47) 씨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딸을 통해 글방을 다니게 됐다. 직장에서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이 필요한데 학력이 낮은 그로선 영어로 된 전문용어나 원리에 대한 내용을 공부한다는 게 무리였다.

후원자들 재능기부로 글방 활동에 참여

이런 그를 위해 글방 선생님들의 특강이 시작됐다. "영어, 수학, 과학을 기초부터 배우고 싶다"는 김 씨를 위해 과목별 지도는 물론이고, 잦은 야근으로 등교시간이 불규칙한데도 늦은 밤까지 글방에서 대기하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꼴찌없는 글방'은 나이와 학력에 관계없이 배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열린 공간이다.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지식과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교실이다.

염 대표는 "교육의 격차로 가난을 대물림하고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글방의 바람이다. 나눔과 믿음을 주고받는 따뜻한 배움터를 들여다보고 싶은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말했다. G

글 · 이윤진 기자 / 사진 · 조영철 기자

'꼴찌없는 글방' ☎ 031-626-5560 cafe.naver.com/bravobottom



수업의 목표는 자기주도 학습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적 향상 못지않게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에서다.



"2008 베이징올림픽의 감동을 재현한다." 광저우아시안게임에 나서는 야구대표팀이 10월 26일 첫 소집 훈련을 갖고 필승을 다짐했다. 왼쪽부터 김강민(SK), 이대호(롯데), 추신수(클리블랜드), 정근우(SK).

동아DB

광저우아시안게임, 金 사냥 나선다

41개 종목 900여 명 선수단 파견… 4회 연속 종합 2위 목표

40억 아시아인의 스포츠 축제인 제16회 아시안게임이 11월 12일부터 16일간 중국 광저우에서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45개국 1만2천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다. 우리나라는 크리켓을 제외한 41개 종목에 9백여 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4회 연속 종합 2위를 노린다. 2010 밴쿠버동계올림픽과 남아공월드컵에 이어 국민들의 마음을 다시 감동으로 물들일 이번 대회의 주요 볼거리를 들여다봤다.

남자축구는 아시아 맹주를 자처하지만 아시안게임에서는 유독 힘을 쓰지 못했다. 안방에서 열린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이후 한 번도 금메달을 따내지 못했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선 월드컵 영웅인 박지성, 이영표, 이운재가 나섰음에도 준결승에서 이란에게 불의의 일격을 당해 결국 동메달에 그쳤다.

24년 만에 금메달을 노리는 한국 사령탑은 '영원한 리베로' 홍명보 감독. 홍 감독은 지난해 U-20 월드컵 8강 멤버였던 21세 이하 어린 선수들을 위주로 팀을 꾸렸고 대표팀 부동의 에이스 박주영(AS모나코)과 김정우(광주 상무)를 와일드카드로 택했다. 셀틱FC에서 최근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기성용의 합류가 불발된 게 아쉽다.

대다수 선수들이 프로에서 활동하고 있어 훈련시간이 부족하지만 금메달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각오로 전의를 다지고 있다. 한국은 조별리그 C조에 북한, 요르단, 팔레스타인과 함께 속했다. 11월 8일 첫 경기가 역사적인 남북 대결이라 더욱 관심을 모은다.

독일 U-20 여자월드컵 3위, U-17 여자월드컵 우승을 거둔 여자축구도 볼거리다. 아우들의 기세가 성인 대표팀으로 그대로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 최인철 감독이 지휘하는 여자대표팀은 이 기세를 이어 아시안게임 첫 메달에 도전한다.

男축구 24년 만의 金 도전·女축구 첫 메달 기대

여자축구는 1990년부터 정식종목으로 채택됐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성적은 4위에 불과하다. 하지만 최근 피스퀸컵에서 첫 우승을 차지하는 등 분위기가 좋다.

프로야구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야구도 아시안게임의 하이라이트다. 한국은 4년 전 도하 대회에서 대만과 일본에 연달

아 패하며 동메달에 그쳐 자존심을 구겼다.

대표팀은 프로야구 사상 첫 타격 7관왕 이대호(롯데)와 왼손잡이 괴물투수 류현진(한화) 등 국내파는 물론, 메이저리그 2년 연속 타율 3할과 20홈런-20도루를 달성한 추신수(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일본 지바 롯데 김태균까지 가세해 투타에서 역대 최고 화력을 자랑한다. 투수 김광현(SK)이 갑작스런 얼굴 경련으로 제외된 점이 투수 운용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남녀 농구는 나란히 명예회복을 벼른다. 4년 전 도하 대회에서 남자는 5위, 여자는 4위에 그치며 최악의 성적을 냈다. 남자농구가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따지 못한 것은 1958년 도쿄 대회 이후 48년 만의 일이었다. 여자는 1974년 테헤란 대회에서 정식종목이 된 이후 처음이었다.

남자는 귀화 혼혈선수 이승준(삼성)에 양동근(모비스), 김주성(동부) 등을 앞세워 중국과 중동세에 맞선다. 중국의 높은 신장, 여기에 최근 부쩍 성장한 중동세가 부담스럽지만 미국 전지훈련을 통해 다양한 수비 조직력을 끌어올린 터라 선전이 기대된다.

여자는 정선민이 부상으로 중도하차했지만 '명품 포워드' 박정은(삼성생명)과 하은주(신한은행), 김계령(신세계), 김지윤(신세계) 등을 주축으로 내심 금메달을 자신하고 있다.

여자 핸드볼은 1990년 베이징대회 때부터 한 번도 우승을 놓친 적이 없다. 우리의 적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부상과 같은 내부적 요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한국은 태국, 카타르, 대만과 함께 A조에서 조별리그를 치르는데 예선보다는 B조에 편성된 중국, 일본과 치를 예선 이후 경기가 더 중요하다.

1986년 서울 대회부터 1998년 방콕 대회까지 4회 연속 금메달을 딴 효자 종목이던 한국 여자하키는 이후 2002년 부산대회와 2006년 도하 대회에서 연이어 중국에 우승을 내줬다. 이번에 중국을 안방에서 설욕하고 다시 금메달을 되찾겠다는 각오다. 여자하키 대표팀은 최근 경기에서 중국을 두 차례 모두 이겨 자신감이 충만하다.

대표적인 기초 종목이지만 한국과는 큰 인연이 없었던 육상과 수영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국 수영의 희망 박태환(단국대)이 2회 연속 3관왕에 도전한다. 박태환은 4년 전 자유형 2백미터, 4백미터, 1천5백미터에서 3관왕을 차지하고 단체전까지 나서 혼자 무려 7개의 메달(금3, 은1, 동3)을 수확했다. 한국 수영 사상 최고 성적이다. 이번에는 자유형 1천5백미터에서 맞수 장린(중국)의 성장세가 빨라 금메달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자유형 2백미터, 4백미터는 금메달이 유력하다.


동아DB

U-20, U-17 월드컵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여자축구가 아시안게임에서도 일을 낸다. 청소년대표팀에서 이제 성인대표팀 주축 공격수로 광저우아시안게임에 나서는 '지메시' 지소연.

육상은 사실 금메달 1개도 일구기 어려운 상황인 게 사실이다. 내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경기력, 트랙 적응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상황에 따라 메달을 노린다는 계획이다. 기록으로 본 목표는 금1, 은1, 동6개이다. 여자 1백미터 허들에서 아시아 시즌 최고기록(13초00)을 세운 이연경(안양시청)이 대표 주자다. 올해 남자 1백미터 한국기록을 31년 만에 경신한 김국영과 2백미터 전덕형(경찰대)도 메달권을 노린다.

효자 종목 레슬링·양궁·사이클 등 무더기 금메달 절실

한국이 2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통적인 강세 종목인 '국기' 태권도를 비롯해 레슬링, 양궁, 사이클 등에서 무더기 금메달 획득이 절실하다.

일단 효자 종목들은 이번에도 메달 전망이 밝다. 태권도는 16체급(남녀 각기 8) 중 12체급에 출전해 금메달 9개 이상 획득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63킬로그램급의 막내 이대훈(19·한성고 3년)이 눈길을 끈다. 이대훈은 국제무대보다 국내 선발전이 더 어렵다는 태권도에서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당당히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았다. 남자 고교생이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대표로 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최강 남녀 양궁은 개인, 단체전 싹쓸이 금메달이 목표이긴 하지만 중국의 텃세가 고민스럽다.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도 중국 관중의 소음에 어려움을 겪은 한국 대표팀은 이를 이겨내기 위해 각종 소음 속에서 특별훈련을 진행 중이다.

세계 정상급 기량을 갖고도 아시안게임과 유독 인연이 없었던 역도의 장미란(고양시청)과 사격의 진종오(KT)도 금메달 사냥 선봉에 선다. G

글 · 윤태석(스포츠동아 기자)

www.minwon.go.kr

언제 어디서나 '민원24'로 해결

인터넷으로 1천8백 종 서류 및 5천 종 민원 처리

정부 민원포털 서비스가 최근 '민원24'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민원24에서는 약 1천8백 종의 민원서류 발급은 물론 약 5천 종의 민원사무 처리 안내까지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뚝딱 해결할 수 있어요. 홍보대사 뽀로로가 민원24의 모든 것을 소개할게요.


'민원24' 메인 화면과 홍보대사 뽀로로와 친구들. © I/O/E/SKB

안녕하세요. '민원24' 홍보대사 뽀로로예요. '뽀롱뽀롱 뽀로로'의 친구들과 함께 민원24를 소개하고 있답니다. 친구들과 뒤뚱뒤뚱 전국을 다니며 국민들께 열심히 알리고 다녔지만 아직도 "민원24가 뭐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부터 찬찬히 소개해드릴게요.

민원24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필요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정부 민원포털 서비스랍니다.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 등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온라인 서비스라고 이해하면 쉬울 거예요.

물론 집에서 세금을 낼 때 접속하는 '홈택스' 같은 특정 분야 전자민원 창구도 있지만, 약 5천 종의 다양한 민원사무를 검색해 열람하거나 발급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민원24뿐이랍니다. 제가 자랑하고 다닐 만하죠?

민원24는 지난 8월부터 기존의 'G4C'를 새로 이름을 바꿔 운영되는 정부 민원포털이에요. 2002년부터 '시민을 위한 정부(Government for Citizen)'라는 뜻으로 사용한 G4C가 생소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對)국민 공모를 거쳐 '민원24'로 바꾼 것이랍니다. 어때요? 24시간


조영철 기자

민원24는 여러 기관의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도 제공한다.

언제 어디서나 민원 업무를 해결해주는 민원24,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나요?

민원24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무척 다양해서 모두 소개하다간 저 뽀로로 숨이 헉헉 찰 거예요. 그래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몇 가지만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가 바로 민원정보 안내예요. 민원24 홈페이지 '민원안내' 코너를 클릭하면 약 5천 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처리기관, 처리기한, 수수료, 구비서류, 소관부서 연락처까지 안내받을 수 있어요.

조상의 땅을 찾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화재 증명을 떼고 싶은데 소방서로 가야 할지 주민센터로 가야 할지 아리송한 분들 계시죠? 아주 세세하고 다양한 민원업무도 여기서 검색하면 직접 기관으로 찾아갈지, 꼭 본인이 가야 하는지, 아니면 민원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한지까지 알려줘요.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민원 업무 해결

둘째는 온라인 민원신청과 열람, 발급업무예요. 10월 중순 현재 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민원은 2천3백여 종이나 된답니다. 이 가운데 22종의 민원은 컴퓨터 화면상으로만 열람할 수 있고, 5백여 종의 민원은 민원서류를 출력까지 할 수 있지요. 발급 시간과 교통비도 아낄 수 있고, 차를 탈 필요가 없으니 탄소배출량도 줄일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겠죠?

셋째는 '생활민원 일괄서비스'랍니다. 덕분에 여러 기관에 걸친 다수의 생활민원을 묶어 온라인으로 한 번에 일괄 신청해 처리할 수 있어요.

이사민원 일괄서비스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사를 하고 나면 신고할 것이 한두 개가 아니죠. 전입신고는 어디서 해야 하는지,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몰라 고민에 빠질 때가 많죠.

이때 '민원신청'을 클릭한 후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신청'으로 들어가 '이사민원' 아이콘을 클릭하면 만사형통이랍니다. 일괄서비스로 지난 1월에 이사, 사망, 보훈, 장애인, 개명 등 5종을 개통한 데 이어, 7월에는 취업준비, 교육제증명, 부동산거래, 기초생활수급, 소자본창업 등 5종을 추가로 개통했답니다.

마지막 넷째는 '어디서나 민원'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는 온라인이나 방문, 전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민원을 신청한 후 가까운 공공기관을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받아갈 수 있는 서비스랍니다. 현재 대학 졸업증명서 발급 등 2백90여 종을 서비스하고 있답니다.

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한 민원사무는 현재 2천3백여 종에서 연말까지 3천 종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본인확인 등의 사유로 온라인화가 불가능한 민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민원사무의 온라인화가 된다는 뜻이죠. 또한 모바일 민원 서비스도 연내 10종(주민등록증 진위확인,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 등)을 10월 말에 개통할 거래요.

'장애인 도우미' 개설… 온라인 민원사무 및 서비스 강화

민원24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의 온라인 민원 이용 지원에도 도움을 주고 있어요. 최근 '장애인 도우미' 화면을 개설해 장애인복지 관련 온라인 민원사무와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고요. 덧붙여서 올해 안에 '컴맹' 노인을 위한 도우미 서비스도 선보일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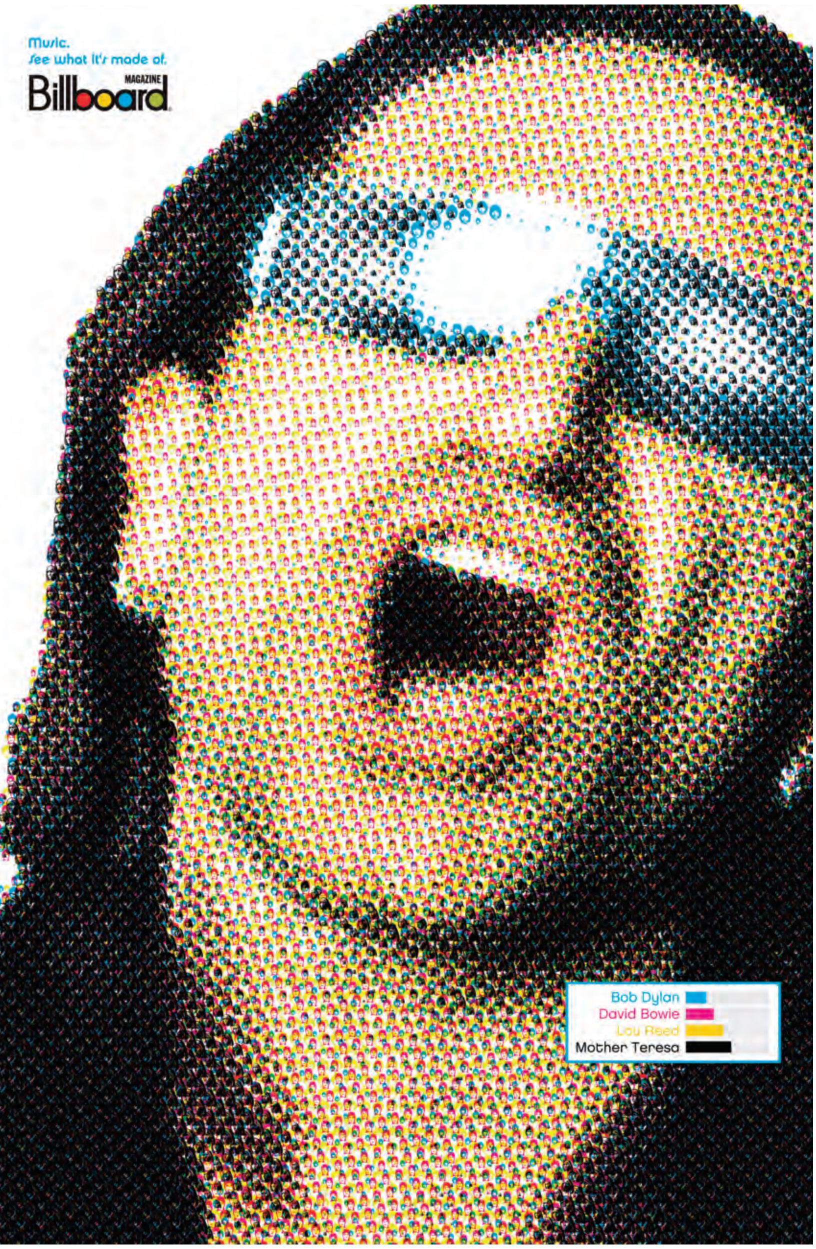
민원24는 정부가 2002년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민원서비스 선진화사업'의 성과물이에요. 2002년 개통 당시에는 정부 민원포털의 민원신청이 연 5만2천여 건이었는데, 올해는 연 2천5백여 만건(추정치)으로 부쩍 성장했답니다.

올해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에도 정부 민원포털의 공이 컸다고 하니, 그 상위 버전인 민원24에 대한 관심이 세계로 이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G

글 · 우매화 객원기자

민원24 www.minwon.go.kr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선진화추진단 ☎ 02-2100-4443



▲제57회 칸 국제광고제에서 인쇄 부문 그랑프리는 슈퍼밴드 'U2'의 리드싱어 보노의 초상화를 소재로 한 〈빌보드〉지가 차지했다.
▼옥외 부문에서 동상을 차지한 제일기획의 니콘카메라 광고.



광고야? 영화야?

칸 국제광고제 수상작 페스티벌

칸 국제광고제 한국사무국은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2주 동안 '칸 국제광고제 수상작 페스티벌'을 열고 있다. 이번 수상작 페스티벌은 올해 열린 제57회 칸 국제광고제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기획한 행사다.

행사는 상영회와 전시회로 나눠 진행된다. 상영회에서는 필름 부문 및 필름 작품의 기법을 겨루는 필름 크래프트 부문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영상으로 보여주며,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14일 동안 이화여대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열린다. 상영 시간은 90분, 상영 작품은 약 70편이다. 필름 크래프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 수상작들은 10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화여대 ECC 다목적홀에서 펼쳐지는 전시회에서 만날 수 있다.

칸 국제광고제는 세계 최고의 권위와 규모를 자랑한다. 또 광고업계의 거물들이 직접 주제를 정한 수많은 워크숍과 세미나가 열려 광고나 창작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참가해야 할 행사로도 인식돼 있다.

지난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진행된 이번 칸 국제광고제는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2만4천 건이 넘는 작품을 출품해 성황을 이뤘다. 〈빌보드〉지는 브라질의 'ALMAPBBDO São Paulo'가 대행 제작한 광고를 출품해 인쇄 부문 그랑프리를 차지했다. 슈퍼밴드 'U2'의 리드싱어 보노의 초상화 일부를 크게 확대해 얼굴을 구성하는 갖가지 색상을 유명인들의 얼굴로 채운 이 작품은 인쇄의 원리를 응용해 음악가들의 성격을 효과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12개 부문에 걸쳐 1백70개 작품을 출품했는데 네이버의 한글캠페인이 PR 부문에서 은상을, 제일기획의 니콘카메라 광고 시리즈가 옥외 부문에서 동상을 받았다. 아울러 만 28세 미만 광고인을 대상으로 펼쳐진 '영 라이언스 필름 경쟁 부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일기획팀이 1위(금상)에 올랐다. G

글 · 김지영 기자

예매 아트하우스 모모 02-363-5333
문의 칸 국제광고제 한국사무국 02-757-1730
cafe.naver.com/canneslions
www.canneslions.co.kr

청사초롱 미소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당신의 미소로 대한민국을 밝혀주세요.



침팬지 대모… 그녀의 삶과 사랑

나들이하기 좋은 가을 날씨는 어느새 종적을 감추고 찬바람 부는 계절이 다가왔다. 차가운 날씨 탓에 절로 몸이 웅크려지지만 이럴 때 책 한 권과 커피 한 잔으로 피로를 푸는 것도 좋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부쩍 쌀쌀해진 11월, 함께하면 좋을 책 10권을 선정했다.

그중 주목할 만한 책은 '침팬지의 대모'라 불리는 동물학자 '제인 구달'의 삶을 다룬 동명의 책이다. 그동안 제인 구달이 직접 썼거나 그를 소개하는 책들은 많았다. 하지만 이번에 발간된 책은 그가 살아온 인생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려내 그의 삶을 오롯이 이해하게 만든다.

책은 학위도 없고 과학적 지식도 없던 그가 세계적인 침팬지 권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로 어린 시절 그를 가르쳤던 어머니의 철학을 알려준다. 그의 어머니는 그에게 "진정으로 원하면 열심히 해라. 기회를 잘 활용해서 포기하지 마라. 꼭 길을 찾게 된다"고 가르쳤다.

장경애 동아사이언스 경영기획실장은 이 책에 대해 "어머니 반느뿐 아니라 그의 연구를 지원해준 루이스 리키 박사, 동지였던 두 남편 등 그의 삶을 이해하는 데 주변 인물들이 중요한 축"이라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의 옛 유적들을 소재로 한국미술사의 대중화 바람을 일으켰던 유홍준 교수가 오랜만에 신작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 1〉을 내놓았다.

이 책의 특징은 유려한 문장과 쉬운 해설로 일반인과 미술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한국미술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건축, 조각, 회화, 공예 순으로 쓰는 기존 한국미술사와는 다르게 선사시대부터 발해까지 12가지 주제로 나누고 기존 미술사에서 다루지 않은 산성과 고분, 비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이 책의 추천자인 이주은 성신여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사진만 넘겨보아도 한국미술사를 이해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www.kpec.or.kr

mcst.go.kr 문화체육관광부



나는 왜 쓰는가

조지 오웰 지음 · 이한중 옮김 · 한겨레출판 펴냄
소설 〈동물농장〉과 〈1984년〉의 작가로 유명한 조지 오웰이 지식인의 글쓰기를 주제로 쓴 책.
추천자 정과리(연세대 국문과 교수)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김호동 지음 · 돌베개 펴냄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연관성을 연구하는 저자가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썼다.
추천자 김기덕(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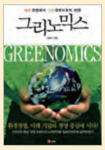
철학개그 콘서트

토머스 캐스카트 외 지음 · 김우열 옮김 · 럭스미디어 펴냄
목적론, 본질주의 등 1백1가지의 난해한 철학 개념을 재미있는 이야기와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추천자 김형철(연세대 철학과 교수)



10대의 섹스, 유쾌한 섹슈얼리티

변혜정 외 지음 · 동녘 펴냄
다이어트에서 10대 걸그룹의 성 상품화 등에 이르기까지 10대의 성을 '문화'라는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봤다.
추천자 강정인(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노믹스

이충현 지음 · 시아퍼블리셔스 펴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통 분야 기업들의 환경경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천자 박원암(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제인 구달

수딥타 바단 퀘렌 지음 · 권혁정 옮김 · 나무처럼 펴냄
침팬지의 대모라고 불리는 세계적인 환경운동가 제인 구달 박사의 삶을 액자소설처럼 읽을 수 있는 책.
추천자 장경애(동아사이언스 경영기획실장)



유홍준의 한국미술사 강의 1(선사·삼국·발해)

유홍준 지음 · 눌와 펴냄
40여 년 만에 나온 본격적인 한국미술 개론서.
추천자 이주은(성신여대 교육대학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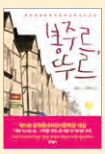
쓸모없지만 유쾌한 지식의 발견

노엘 보탐 지음 · 권혁 옮김 · 돋을새김 펴냄
'쓸모없는 지식 협회' 회원들이 주고받아온 사소하고 쓸모없어 보이지만 알고 나면 고개를 끄덕이게 할 유쾌한 지식을 소개하고 있다.
추천자 탁석산(철학자)



달달한 인생

지현곤 지음 · 생각의나무 펴냄
카투니스트 지현곤의 인생 이야기가 담긴 에세이. 장애인이자 작가로서 살아가는 저자의 삶이 진솔하게 담겨 있다.
추천자 손수호(국민일보 논설위원)



봉주르, 뚜르

한윤섭 지음 · 김진화 그림 · 문학동네 펴냄
아동문학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남북분단 문제를 다뤘다.
추천자 오은영(동시·동화 작가), 서정숙(그림책 평론가)

말보다 실천!

글과 그림 · 최영순



지혜로운 사람은 말에는 더디지만 일을 행함에는 더없이 민첩하다.
– 공자

Culture

인간의 어리석은 속성을 파헤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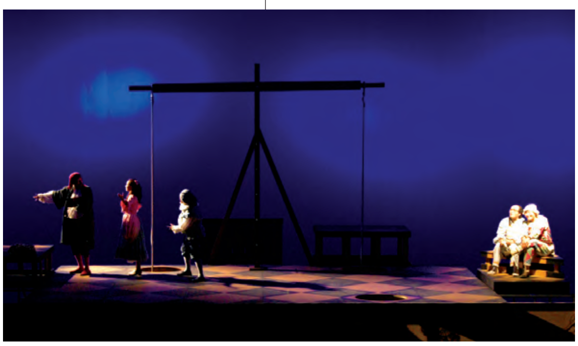
유럽식 정통 코미디 〈스카펭의 간계〉

유럽식 정통 코미디 〈스카펭의 간계〉가 17년 만에 국내 무대에 올랐다. 코미디 전문 극단인 '수레무대'는 10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서강대 메리홀 대극장에서 이 작품을 공연한다.

〈스카펭의 간계〉는 17세기 프랑스의 극작가 몰리에르의 작품 중 하나로, 소극(笑劇)의 성격을 띈 희극이다. 극에는 사랑에 빠진 두 쌍의 젊은 연인과 사업상의 이익을 위해 자녀를 정략결혼 시키려는 아버지들, 그리고 꾀 많은 하인 스카펭이 등장한다. 연극은 정략결혼을 거부하고 몰래 연애에 빠진 청년이 아버지의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꾀쟁이 하인 스카펭에게 뒤처리를 의뢰하면서 이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속고 속이는 한바탕 소동을 유쾌하게 그려낸다.

스카펭은 재치 있는 행동을 통해 인간의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속성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쳐가며 인간 속성에 대한 공감과 표현으로 웃음을 선사한다. 무대와 배우들의 입체적인 동선도 눈길을 끈다. 배우들은 널뛰기나 시소를 이용해 등장하고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 퇴장하는 등 스펙터클하고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번 공연은 서울문화재단의 특성화 지원사업인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초연에 이어 이번에도 연출을 맡은 수레무대 김태용 대표는 "관객들이 다채로운 볼거리와 함께 배우들이 오랜 시간 갈고닦은 코미디 연기의 진수를 맛봤으면 한다"며 "이번 공연이 대중적인 친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일시 11월 9일까지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4시, 7시, 일요일 오후 4시(월요일 공연 없음) **장소** 서강대 메리홀 대극장 **관람료** 일반인·대학생 2만원, 초중고생 1만2천원(사랑티켓 예매 시 일반인·대학생 1만5천원, 초중고생 1만원)
문의 031-358-2515, 02-762-4242(사랑티켓) www.wagonstage.com

● **창극 〈청〉**

국립극장이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며 마련한 특별 기획공연. 고전 〈심청전〉을 바탕으로 만든 국립창극단의 국가브랜드 공연으로 2006년 초연 후 5만여 명 이상이 관람한 대작이다.

일시 11월 12일 오후 8시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관람료**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1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동반 1인까지 50퍼센트 할인
문의 02-2280-4115~6 www.ntok.go.kr

●● **연주회 〈알렉산더 멜니코프 피아노 리사이틀〉**

우리 시대 젊은 피아니스트 중 가장 빼어난 실력의 소유자로 정평이 난 알렉산더 멜니코프가 한국에서 펼치는 네 번째 피아노 독주회.

일시 11월 6일 오후 8시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관람료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B석 2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888-2698 www.sac.or.k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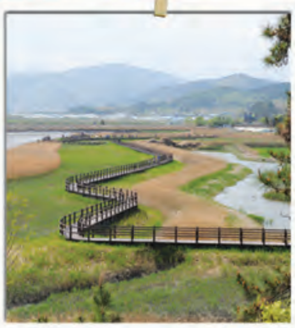
●●



저탄소 녹색관광 - 생태관광지 10선

이렇게 좋은데를 두고 넌 어디있니?


태안군 신두리 해안사구


순천시 순천만


창녕군 우포늪


서산시 천수만


평창군 백룡동굴


영주시 소백산자락길


진안군 데미샘과 마실길


파주시 서부DMZ


화천군 동부DMZ


제주도 거문오름

때 묻지 않은 자연을 담았습니다.

오솔길을 달리는 자전거에 파란 하늘을 싣고, 풀 섶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에 시간을 담그고...

때로는 예쁜 나비와 함께 걸었습니다.

환경친화적 저탄소 녹색관광이 지구 온난화를 예방합니다.

Census Day
2010 인구주택총조사

G20 SEOUL SUMMIT 2010
위기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서울 G20 정상회의

통계청
STATISTICS KOREA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하세요

[11월 1일~ 11월 15일]

인터넷 조사는 10월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간 진행됩니다



Census Day | 2010 인구주택총조사

- **조사기간 :** 10월 22일 ~ 11월 15일
- **조사방법 :** 인터넷 조사 (10월 22일 ~ 10월 31일), 방문 면접 조사 (11월 1일 ~ 11월 15일)
- **조사대상 :** 2010년 11월 1일 0시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
- **인터넷조사참여 :**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www.census.go.kr